방송작가 KOREA TV & RADIO WRITERS JOURNAL 09 2018

Special Theme

2018 상반기, 화제작을 통해 본 성공의 정석

문제적 현실을 직시하고 상처를 치유하다 | 윤석진
'관계성'과 '여성 먹방'에 주목하다 | 황진미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가까이 | 김교석
라디오 네버 다이 | 차우진

여기 이 作家
KBS <너도 인간이니?>
조정주 작가



<너도 인간이니?> 조정주 작가

방송작가

KOREA TV & RADIO WRITERS JOURNAL 09

발행일 2018년 9월 5일 | 등록번호-영등포, 라 00494 | 등록일자 2016년 10월 24일

《방송작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방송작가》에 게재된 필자의 의견은 본 협회의 공식 의사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작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 作家
KBS <너도 인간이니?>
조정주 작가

04 **여기 이 作家**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KBS <너도 인간이니?> 조정주 작가
글 김윤양

10 **作家 in 作家 I**
전설을 좇는 사람들
KBS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김지은 작가
글 김선미

14 **作家 in 作家 II**
너 되게 웃긴다, 터져야 삽니다
MBC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
박혜지 작가
글 박나경

Special theme
2018 상반기, 화제작을 통해 본 성공의 정석 18

20 문제적 현실을 직시하고 상처를 치유하다
글 윤석진

24 '관계성'과 '여성 먹방'에 주목하다
글 황진미

28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가까이
글 김교석

32 라디오 네버 다이
글 차우진

36

36 **방송유감**
Z세대의 등장과 동영상 정보 :
포털사이트 방송의 책임과 현명한 정보소비자
글 송경재

40 **저작권 칼럼**
'자기표절'의 정치학
글 홍승기

44 **방송작가 반세기**
새로운 시도
글 이홍구

48 **연출노트**
물고기가 중요한 건 아니었다
채널 A <도시어부>
글 장시원

52 **프로그램 집필기**
진실된 먹방의 세계로 떠나다
OLIVE <원나잇 푸드트립>
글 한서은

56 **저작권 상식**
웹툰 전성시대!
드라마 제작 시 유의할 저작물 이용허락 절차

時代共感

58 **원종우의 깐깐한 과학 이야기**
압도적이고 놀라운 크기의 세계
글 원종우

60 **정병욱의 음악의 언어**
예서 <Damn Rules>,
모두에 대한,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글 정병욱

62 **이건범의 우리말 밑바닥**
서명과 사인, 그리고 수결
글 이건범

64 **해외통신 – 영국**
TV 모델, 거꾸로 뒤집기
'바크로프트 미디어(Barcroft Media)'의 성공
글 김수정

67 **생명보험상식**
보험설계사 중 최고의 권위자,
골든펠로우(Gloden Fellow)
글 생명보험협회 홍보부

68

68 **作家共感 I**
바람의 땅에서 들꽃처럼 사는 사람들, 고려인
글 서현이

70 **作家共感 II**
우아한 작가는 없다
글 배성아

72 **作家共感 III**
50일의 TMI(Too Much Information)
글 심미은

74 **협회소식**
'2018 방송작가 저작권 연수'

78 **편집자의 말**
성공의 정석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KBS <너도 인간이니?> 조정주 작가

글. 김윤양 편집위원 **사진.** 김용철 **장소협조.** 홍대 카페 낭만적

'아아, 나는 잠들었는가. 깨어있는가. 누가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느냐.'
셰익스피어 <리어왕>의 대사다. 최근 종영한 KBS 드라마 <너도 인간이니?>의 조정주 작가를 만나러 가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너도 인간이니?'라는 타이틀이었다. 본격 인공지능 AI 드라마를 선언했으니 로봇을 염두에 둔 질문이겠으되 심장이 뛰어도 차마 인간답지 못한 이들에게 '너도 인간이냐'고 묻고 싶은 마음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이겠다 싶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하나의 질문이 추가되었다. 리어왕의 대사를 되뇌며 나는 물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가.'



KBS 드라마 <너도 인간이니?>는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 세상에 뛰어든 인공지능 AI 로봇 남신III가 누구보다 인간미 가득한 여자 사람 강소봉을 만나 진정한 사랑과 인간다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AI 휴먼 로맨스.

2006년에 드라마 공모에 당선된 후 기획해뒀던 거였어요. 재작년에 다시 꺼내 설정을 보완해서 시놉시스를 쓰고 있는데 '알파고'가 나와 세상이 난리가 났죠. 사실 기획단계에서는 '로봇이 드라마가 돼?'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알파고'가 큰 힘이 되었어요. '알파고' 덕분에 편성이 되었지만 막상 실제로 해보니까 로봇이 드라마 주인공이 되기에는 여전히 장벽이 높더라고요. 반감을 줄이기 위해 기존 드라마의 익숙한 틀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엄마가 로봇을 만들었다는 설정이나 로봇이지만 스스로 감성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설정도 최대한 낯설지 않게 하려고 한 거고요. 재벌가의 암투와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 이유였어요. '이 정도면 그렇게 낯설진 않겠지?'라고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주인공이 로봇이라는 데 대한 반감이 있더라고요.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면 과장일까. 많은 시청자들이 인간이 아닌 로봇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됐다.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로보맨스(Robot romance)에 푹 빠진 것이다. '30대 육아맘도 심쿵하게 만드는 로맨틱'이라는 시청 소감을 보면 작가가 정해둔 설정들이 제대로 먹힌 것 아닐까.

감성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게 한 설정 중에 '울면 안아주는 설정'이라거나 '거짓말을 하면 눈을 깜빡이는 설정'이 있어요. 그런 설정들 때문에 이 주인공이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닌데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로봇이니까 '하고 싶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좋아', '싫어' 이런 말도 못했어요. 언어습관도 어려웠고, 분노, 그리움, 슬픔….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까, 그게 제 숙제였죠. 엄마가 죽어서 슬픈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자기만의 모니터에 계속 엄마가 죽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을 본 로봇 주인공이 '엄마가 계속 죽어'라고 말해요. 마치 인간이 그리워하듯 로봇도 슬프고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이게.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4부에 '조만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씬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조만간 보자…' 그런데 로봇은 그 '조만간'이라는 말을 모를 거잖아요. 씬 안에 들어가서 생각해보니 과연 로봇이 '조만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로봇이 사람이랑 다르게 이해하는 존재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래서 로봇이 묻죠. '조만간'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

로봇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씬 안으로 들어갔다는 조정주 작가. 자연스레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음은 물론 어느새 자신이 만든 로봇 캐릭터로부터 위안을 얻게 되었다고.

태생 자체가 인간의 대체품이라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이 로봇을 사방에서 이용하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인간들의 목적에 따라 도구로 쓰이는 존재의 애잔함이 감정이입 포인트였는데, 쓰다 보니 '내가 사람이면 좋았을까' 이런 대사를 쓸 때, 쓰고도 슬프더라고요. 로봇이니까 사람보다 더 솔직히 말하게 되는데 그런 씬들을 쓸 때, 많이 울었고 그 부분을 보고 시청자들이 호응해주면 또 힘을 얻었고요.

'1일 1반전'이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반전을 거듭해 마지막 회까지 끝을 알 수 없게 했던 <너도 인간이니?>는 12년 차 조정주 작가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작품이었다. 데뷔 후 거침없는 질주에 비춰보면 '태생부터 드라마 마니아'였거나 '글쓰기가 전부라 믿어온 문학소녀'가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뜻밖에 대학 졸업까지도 글 쓰는 데 관심이 없었단다.



국문과 출신이긴 했지만 문학동아리 친구들을 보면 '그 지겨운 짓을 왜 하냐'고 할 만큼 글에는 관심 없었어요. 대학 졸업 후 문화비평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공부를 더 해볼까 하던 차에 친구의 권유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영상이론과' 지망이었는데 친구들이 어느 날 제가 쓴 글을 보고 '영상이론과' 말고 '시나리오과'를 써보라는 거에요. 글을 써본 게 없는데 글을 쓰라니 망설이고 있는데, 열 살 어린 중학생 사촌 동생이 '언니, 언니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무서워서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볼까' 하고 엉겁결에 지원하게 됐죠. 들어가긴 했는데 제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한 학기는 바보처럼 다녔고 두 번째 학기쯤 되어서야 겨우 적응해 재미있게 다녔죠.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다. 갑작스레 아버님이 쓰러지셨고, 동생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누군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공부는 사치처럼 여겨졌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려던 무렵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방법이 없었어요. 아버님의 투병 생활이 길어졌어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빚도 생겼고. 제가 일을 해야 했죠. 학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2년만 돈 벌고 돌아오자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학원 생활도 글 쓰듯 남을 설득하는 일이니까 전략을 잘 세워 재미있게 해보자…. 열심히 했지만, 똑같은 날들이 계속 되풀이되니까 지치더라고요. 다행히 제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계속 저에게 글을 쓰라고 권유한 사람들이 있었죠. 어느 날 드라마 <인어아가씨>를 보고 있는데 화면 아래로 방송작가교육원 광고 자막이 흐르더라고요. 드라마를 써야겠다는 생각은 없었고요, 그저 뭔가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방송작가교육원 기초반에 지원하게 됐고, 함께 공부하던 동기들 등쌀에 쭉 공부하게 됐죠.

이룬 것도 없이 삼십대 중반이 됐다. 교육원을 졸업하고 공모전에 두어 번 떨어졌다고 조급해서 기절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다 2006년 KBS 드라마 공모에 당선이 되었을 때 제일 기뻐한 사람은 뜻밖에 아버지셨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게 많은 분이라 제가 뭔가를 대신 이뤄주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예종에 들어가 글 쓰고 그럴 때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버지가 아프면서 제가 글 쓰는 걸 그만뒀잖아요. 제 당선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때 처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앞길 막는 줄 알았다'고요. 한창 공모전 준비하다가 너무 지쳐서 그만두려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저를 밖으로 부르셨던 적이 있어요. 장미꽃을 보면서 '저 꽃을 봐라. 저 꽃도 졌다가 다시 피지 않니. 그러니 너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뜻밖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대요. 어떻게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아버지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죠.

● **백혈병으로 또 신장암으로 10년간 투병하시던 아버지는 딸의 드라마 <파트너>까지 보시고 눈을 감으셨다. 아버지를 간병하며 조금 돌아온 듯 보이는 길이었지만, 그 길은 또한 아버지가 놓아준 길이기도 했다.**

당선작이 <십분간, 당신의 사소한>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이 응급실 이야기에요.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구급차 타고 응급실을 많이 갔거든요. 응급실에 갔다고 다 슬프기만 한 게 아니고 슬퍼하는 시간이 지나면 또 웃고… 삶이 그렇잖아요. 그런 응급실을 배경으로 엄마가 돌아가시는 과정을 겪는 한 가족 이야기를 썼던 거에요. 아버지가 아파서 잃은 것도 많지만, 아버지가 아파서 드라마를 쓴 것도 있죠. 돈을 벌고 간병하며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진짜 글을 써보고 싶어졌거든요.

● **정말 열심히 썼다. 2006년 말부터 2007년에 걸쳐 네 편의 단막극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고, 2009년 KBS 드라마 <파트너>를, 2011년에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를 집필했다. 높은 인기를 누리며 한 호흡 쉬어가도 되었으련만 2012년 KBS 일일극 <힘내요, 미스터 김!>을 연이어 써나갔다.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믿고 맡겨주는 게 고마워 두렵고 힘들어도 혼자만 앓았을 뿐, 발 빼지 않았다. 그러나 꿋꿋이 견뎌 훌륭한 결과물을 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글을 쓰다가 딱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일을 해보면 뜻밖에 해답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글이 써지지 않아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벗어나지 못했죠. 8년을 내리 그렇게 일하고 나니까 온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일일극 시작할 때는 방송 시작 전부터 링거를 맞으면서 썼고, 30회 쓰고 나니 체력적으로 한계가 느껴져 끝까지 다 못 끝낼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일주일에 일일극 5회분이 나와야 하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대본이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올 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돌아보면 시작할 때마다 그랬어요. <파트너> 때도 충분히 취재하고 준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었고, <공주의 남자>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극에 대한 고민이 안 된 상태에서 드라마를 올려야 하니 그 부담감이 너무 커서 나중에는 작업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공기에 질식할 것 같았어요. 제가 어린 학생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성공이든 실패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에요. 저는 두 가지 다 힘들었어요.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허겁지겁 하다 보니 드라마가 잘 되어도 힘들고, 못 되어도 힘들고. 쓰는 것 자체가 다 힘들었어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쳤죠.

● **왜 써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기술자' 같다는 생각도 했고, 기술을 연마하듯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서 내보내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지쳤을 때 문득 두려웠다. 나는 누구인가.**

저는 쓰고 싶은 욕구가 넘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쓰고 싶은 게 없으면 더 작가를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시간을 가지고 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제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뭘 재미있어 했는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전에

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번 작품을 썼거든요. 매번 반전이 나오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는데 제가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글을 잘 쓰고,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동안 내가 참 무턱대고 글을 썼구나'… 비로소 제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할까. 그러고 나니 새 작품 들어갈 때의 공포가 덜해지고, 한약을 먹어가며 글을 쓰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글을 쓰는 게 목표잖아요. 좋은 글을 쓰려면 무엇보다 제 자신을 챙겨가면서 쓰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작가데뷔 12년 만에 비로소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조정주 작가. 그리고 나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씩 생긴다고. 조정주 작가의 얼굴에 번지는 옅은 여유와 충만함이 정말 치열하게 글을 쓰고 받은 선물 같아서 지켜보는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가. 그럼 왜 쓰는지 돌아보라. 당신은 어떤 말을 하고 싶고, 어떤 글을 쓰고 있는가. 오래 글을 쓰며 롱런 하는 비결은 묻지 않아도 되겠다. 답은 그 안에 있을 테니.



조정주 作家

집필작품

2006	KBS 극본공모 <십분간, 당신의 사소한> 가작 당선
2006	KBS 드라마시티 <십분간, 당신의 사소한>
2007	KBS 드라마시티 <인간말종 개상구>, <변두리 맨몸멜로>, <쉿! 거기, 천사>
2009	KBS 미니시리즈 <파트너> 공동집필
2011	KBS 미니시리즈 <공주의 남자> 공동집필
2012~2013	KBS1 일일드라마 <힘내요, 미스터 김!>
2018	KBS 미니시리즈 <너도 인간이니?>



전설을 좇는 사람들

KBS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김지은 작가

글. 사진. 김선미 편집자 **장소협조.** 합정 카페 투니온

불후不朽. 썩지 아니함이라는 뜻으로, 훌륭하여 그 가치가 영원토록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음을 이르는 말. 수십 년이 지났어도 썩지 않은 채 아름다운 노랫말과 선율로 우리를 다시 찾아온 명곡들을 8년째 매주 선사해오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음악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해 무대에 오르는 후배가수들의 떨리는 마음을 아는지, 선택의 버튼을 누르는 500명 판정단의 손길은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하고 또 신중하다.

음악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도 흔들림 없이 부동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KBS의 간판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 그 시작을 열어 지금껏 함께 걸어온 김지은 작가를 만났다.



문예창작학과 4학년 김지은 학생에게 어느 날, 적지 않은 나이에 편입을 해 같이 수업을 듣던 김성덕 작가가 자신이 맡고 있는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서 일해 볼 것을 제안했다. 조기 취업을 하면 평균학점(공부한 것보다 훨씬 잘나온 점수)을 준다는 반가운 시스템에 적극(?) 기대어 막내작가 일을 시작, 이후 <전파견문록> <생방송 퀴즈가 좋다> <출발 드림팀> 등을 거쳐 현재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를 8년째 이끌어오고 있다.

● 8년 전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의 시작을 한번 회고해주세요.

KBS 토요일 저녁 시간대가 계속 부진하던 때였어요. <무한도전>, <스타킹>이 버티고 있는 마의 지대, 죽음의 시간대였죠. 그래서 계속 프로그램이 교체가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급하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2주 만에 만들어내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시즌 1으로 알고 계시는 KBS <불후의 명곡>은 이런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라 완전히 예능 프로그램이었고요, 이름만 이어받아 '전설을 노래하다'를 붙여 새롭게 음악 경연 프로그램으로 탄생한 게 지금의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이하 불후의 명곡)이에요.

당시 <슈퍼스타K> <나는 가수다> 같은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어서 차별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잡게 된 콘셉트가 바로 "전설 가수의 노래를 후배 가수들이 재해석한다"였죠.

분명히 다른 콘셉트였는데도 출발하던 시기에는 흔히 말하는 베끼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셨죠.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차별화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가수다> 같은 경우 바탕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톤이 '긴장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조금 더 유쾌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걸로 기본방식을 달리 했어요. 한번 떨어지면 탈락이지만 저희는 계속 나올 수 있는 형식이거든요. 심지어 오늘 꼴찌한 사람이 다음 주에는 우승을 할 수도 있는 룰인 거죠. 물론 1등을 하면 좋지만 승패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다보니 갈수록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초반에는 다른 가수들 무대 어떻게 보셨냐고 물으면 모두가 다 형식적인 칭찬만 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니까 편하고 가볍게 얘기를 해요. "어, 태극기 쓰는 거 반칙 아닌가요~" "저 힘들 것 같은데요. 노래 부르고 빨리 올게요~"(웃음)

<불후의 명곡>이 배출한 스타가 정말 많습니다. 황치열, 알리, 손승연, 민우혁 씨 등등…. <불후의 명곡>의 무대는 가수들에게 기회의 장이 아닐 수 없네요.

가수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설 무대가 없다는 거예요. 손승연 씨만 해도 <보이스 오브 코리아>에서 우승을 했음에도 설 무대가 많지 않았죠. 가요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아이돌들로 포화가 되어있으니까. 저희가 발굴해 여러 번 얼굴을 보이게 되면서 실력 있는 가수들이 얼굴을 알리고 마침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가수들을 발굴하면서 저희 프로그램도 같이 성장해나갔어요. 황치열 씨가 한류스타가 되어 종횡무진 하는 게 저는 여전히 신기해요. 저희만 치열이를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웃음).

매 회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얼굴들을 찾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맥락에서일까요?

맞아요. 보통 한 회에 6~7명의 가수가 나와요. 대중들이 원하는 가수도 있고, 아이돌도 있고, 또 저희가 발굴한 사람들도 있죠. 사실 신인 T.O를 항상 한자리씩 비워놔요. 그 신인이 밴드가 됐건, 아이돌 신인이 됐건, 잊혀져갔던 가수가 됐건, 혹은 재야의 고수가 됐건. 장르면에서도 한 회에 국악, 뮤지컬, 밴드, 대중가수 이렇게 다양성 있게 배리에이션을 맞추거나 컬래버레이션을 통한 장르 파괴를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결국 섭외가 관건일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전설과 플레이어를 섭외하면서 겪었을 고충들은 그간 언론을 통해 접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만….

전설은 전설대로, 플레이어는 플레이어대로 다 섭외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조용필 선생님은 저희가 8년을 기다렸어요. 꽃다발도 보내고 편지도 쓰고. 송창식 선생님 섭외할 땐 안 가본 도시가 없었죠. 콘서트 하시는 도시마다 찾아갔어요. 그렇게 몇 년 만에 섭외가 되는 전설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미자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는데,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참 예능 안 나가는데, 뭐 하나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부터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요.
힘들게 섭외를 했건 아니건 간에, 나오셨던 전설분들은 항상 출연하길 잘했다고 말씀하세요. 본인의 노래를 후배가수가 편곡한 걸 듣는다는 것에 대해 되게 뿌듯해하시고 굉장히 큰 기쁨을 안고 가시더라고요.

전설은 전설답게 다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 특히 기억에 남는 전설 편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글쎄요, 너무 많아서….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정확히 모르시는 상태에서 후배들을 위하는 길이라면 하시겠다고 1회 전설로 흔쾌히 나서주셨던 심수봉 선생님이 기억에 남고요. 최근에 하셨던 조용필 선생님도 기억에 남죠. 말주변이 없다고 방송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건네셨던 멘트 하나하나가 다 너무 좋아서 기억에 남아요.
배호 선생님 편도 기억에 남아요. 배호라는 가수가 유명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작진들이 어리다보니 잘 모르는 거죠. 저희 프로그램에 자문위원단이 있고 그중에 평론가가 서너 분 계세요. 그런데 다들 배호 선생님을 추천하면서, 노래들이 너무 좋으니 꼭 두 회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노래는 하나도 모르겠고 시청률 안 나올까봐 너무 불안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청률이 너무너무 잘 나왔었죠.

같은 포맷으로 8년이라는 시간을 채우기까지의 여정은 숱한 고민의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을 신경 쓰는 수밖에 없어요. 포맷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시청률이 안 나올 때 내부에서는 구성을 바꾸고 싶어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구성을 바꾸면 프로그램 전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다만 가장 큰 어려움도 역시 사람이라는 거. 알리나 민우혁 같은 가수를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노래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자신만의 매력이 있으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참 찾기가 힘들어요. 아, 이 가수를 보려면 <불후의 명곡>을 봐야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을 찾고 싶은데… 저희 작가들 하는 일이 그거예요. 어떤 가수들이 있을까, 숨겨져 있는 가수는 없을까. 발굴하는 재미가 또 쏠쏠-하긴 하죠.
사실 나올 전설은 다 나왔고, 6~7명의 가수를 매주 꾸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매주가 위기죠. 제작진을 따라다니는 굉장히 큰 숙제예요.

방송일 시작하신 지 올해로 꼭 20년 차가 되셨는데요. 좀 새삼스런 질문일 수 있지만 보람 느꼈던 순간을 한가지 꼽아주신다면요?

후배가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여기 나온다니까 저희 엄마가 참 좋아하세요." 네가 <불후의 명곡> 나갈만한 가수가 됐구나, 성공한 가수구나 하고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불후의 명곡>으로 KBS 연예대상에서 방송작가상을 받았을 때 수상소감으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능작가를 하면서 부모님이 보시고 좋아할만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게 꿈이었다'고요. 저희 엄마가 <불후의 명곡>을 참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의 좋은 점이 아닐까 싶어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노래는 아빠, 엄마 세대 노래지만 부르는 가수는 자녀 세대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거죠.
<불후의 명곡> 하기 전, '왜 나한테는 대표 프로그램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작가로서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불후의 명곡>을 하게 되면서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 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오래 했다는 게 저한텐 굉장히 큰 자부심이에요. 지금까지 꾸준히 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도 좀 칭찬해주고 싶은… 그래, 잘했다 정말(웃음).

슬럼프를 지우고 자부심을 안겨준 프로그램. 그 자부심이 오래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전설이 대중에게 또 하나의 추억과 공감을 안겨줄 수 있도록 '불후'의 프로그램으로 남게 되길 응원한다.

너 되게 웃긴다, 터져야 삽니다

MBC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 박혜지 작가

글. 박나경 편집위원 **사진.** 김선미 **장소협조.** 연남동 유어로스팅파크

30년 넘게 매일 낮12시에 울려 퍼지는 시그널이 잦아들고 나면 오프닝을 마친 DJ 김신영이 묻는다. "혜지 작가, 혜지 작가는 어떻게 생각해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정오의 희망곡'을 넣으면 자동 검색어로 뜨는 '혜지 작가'. DJ 김신영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광고 소개를 하며 청취자들 사이에 이름을 알린 박혜지 작가는 5년 전, 막내 작가로 <정오의 희망곡>에 합류해 1년 전 입봉한 새내기다.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 막내 작가일 때는 사실 그런 걸 느끼기 힘들잖아요. 내가 너무 필요한 존재인 건 알겠는데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기회는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다가 같이 일하던 중간 작가들이 계속 그만두는 일이 생겼어요. 누구는 외국으로 나가고, 누구는 드라마 쪽으로 가고…. 작가가 여러 번 바뀌던 중에 문득 제가 눈에 띈 거예요. 저는 연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 작가 리스트에도 없었거든요. 그때 "아, 너도 있었지? 한 번 써볼래?" 그렇게 입봉을 했어요.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이하 정오의 희망곡)은 모든 코너의 지향점이 무조건 웃기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목표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 번 웃기면 '오늘 방송 잘 됐다' 그걸로 끝. '럭키 씨 나마스테'라는 일일 코너 같은 경우도 '인도에 대해서 알아가자'라는 느낌보다는 인도에서 웃긴 일, 초대석의 경우도 초대손님한테서 재미있는 부분을 먼저 찾아요. 무조건 웃겨야 되니까요.

낮 12시라는 시간대와 김신영이라는 DJ의 개성을 살리는 웃음 코드를 찾는 게 관건이라는 박혜지 작가는 원래 <무한도전>을 보며 예능 작가의 꿈을 키웠었다. 학창시절 장래 희망을 적어낸 것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한결같이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였다. 그런데 막상 첫발을 디딘 예능 프로그램이 잘 맞지 않았다. 방송일 외에 다른 일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던 터라 고민이 많았다. 그러던 중에 라디오 쪽에 자리가 있는데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라디오 쪽은 처음부터 '라디오 작가가 될 거야' 하는 분이 진짜 많으시잖아요. 라디오 들으면서 감성을 키워온 분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제 또래 작가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내가 찾아서 보고 듣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라디오도 예능 요소가 많은 코믹 라디오를 즐겨 들었어요. 라디오도 하나의 예능으로 즐긴 거죠. 처음 라디오 일 시작할 때 '아, 저는 <푸른밤…> 듣고 왔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듣고 작가를 꿈꿨어요' 이런 분들 사이에서 저는 '<두시의 데이트 박명수입니다> <컬투쇼> 밖에 몰라요' 이랬어요.

그렇게 라디오 일을 시작해서 막내로서 분위기 메이커가 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랬더니 '너 되게 웃긴다. 그걸 원고에 녹여봐라. 말로만 웃기지 말고.' 이러면서 여러 기회가 생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라디오라는 매체가. 바로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제가 쓴 글과 그 글에 녹아난 제 생각에 바로 피드백이 오고 청취자들이 같이 호흡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 다 친구 같아요, 청취자들이. 혼자서는 경험치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청취자들 덕분에 제 경험치가 풍성해지고 깊어져요. 제가 정말 모르는 세계, 그러니까 아기 엄마들 세계, 아저씨들 세계, 택배 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점들이 채워지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정오의 희망곡>에서는 방송을 할 때 다 별명이 있어요. 전화 연결된 청취자들에게 별명을 지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원 광교 누구 언니' 이런 식으로요. 그럼 약 한 달 후에 청취자들이 '근데 수원 광교 언니 어떻게 됐어요?' 이러면서 그걸 기억하고 궁금해 해요. 그러면 저희도 다시 전화해서 '언니 어떻게 됐어요? 통화 한 번 더 가능하세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다시 이야기가 이어지고 3탄, 4탄까지 가더라고요. 이렇게 청취자들과 이어져서 함께 만들어가는 게 재미있어요.

하지만 이런 재미를 느끼기까지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문장은 최대한 짧게, 이런 말이나 대사를 써도 될까 싶은 일상의 언어들을 원고로 옮기는 작업이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다.

예를 들면 보통 두 줄로 쓸 수 있는 문장을 다섯 글자로 빠르게 치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짧은 단어를 길게 풀어 쓸 수 있어도 긴 걸 짧게 줄이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고민이 많았는데 누가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자막을 주의해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라디오에서 예능자막이 웬 말인가 싶었는데 모든 말을 예능자막처럼 줄

여서 얘기를 해보니 웃긴 거예요. 저는 같이 일하는 선배님 글 보면서 제 수첩에 옮겨 놓고 그러는데 한 번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름철에 모기가 너무 많아서 모기장을 치면 모기들은 항상 귀퉁이에 가 있기 때문에 귀퉁이에 가면 모기가 무조건 잡힌다, 라는 내용이에요. 저 같으면 그냥 '이거 되게 웃긴다' 이러면서 거의 비슷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선배님은 정말 짧게 '모기장 귀퉁이 가면 검거율 100%'라고 쓰는 거예요. '검거율 100%'. 그런 걸 보면서 '아, 난 아직 멀었다. 진짜 멀었다' 생각했죠. 선배님한테 '그런데 검거율 100%란 말을 어떻게 해서 쓰게 됐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능자막처럼 짧게, 한 문장 안에 모든 게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쓰라고 조언해주셨어요. 여전히 많이 배우고, 웃기려고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

박혜지 작가에게 선배 작가들의 존재가 크게 다가온 것은 지난 방송사 파업을 통해서였다. 맡은 프로그램에 매달려 있느라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는데 방송사 파업에 작가들도 동참하면서 다른 작가들과 만나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많이 놀랐어요. 몰랐는데 강경한 입장의 작가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저는 작가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더라고요. 폭언이라든지 일을 과하게 시킨다든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작가에게 넘기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작가니까' 해야지, 라고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파업 때 여러 작가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 같은 라디오 작가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들이. 그래서 자기가 받는 부당함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고요. 자기 자리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해주시는 선배들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구나' 하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박혜지 작가의 마음에 새겨진 한 마디 역시 어느 술자리에서 만난 한 선배 작가의 말이다. 라디오 작가의 일은 매일 퍼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가면서 퍼내야 한다는 말.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계속해서 채워가는 경험들을 하며 작가를 계속해야겠다는 바람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일단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에 뛰어들었다.

저희는 에피소드 사냥하러 간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하면 청취자들이 사연을 보내도 공감할 수가 없어요. 제 나이도 경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해요. 그냥 뭐든. 클럽을 좋아하지 않는데 친구들 따라서 일부러 작정하고 가보기도 했고, 그래도 꾸준히 나가는 곳은 책 동호회랑 조깅 동호회. 제가 전혀 모르는 회사원의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프로그램을 연이어 하는 자신을 '운이 좋다'고 표현하면서도 작가로 입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을 자신감에서 찾는 박혜지 작가. 그 건강한 웃음이 오늘도 한낮에 울려 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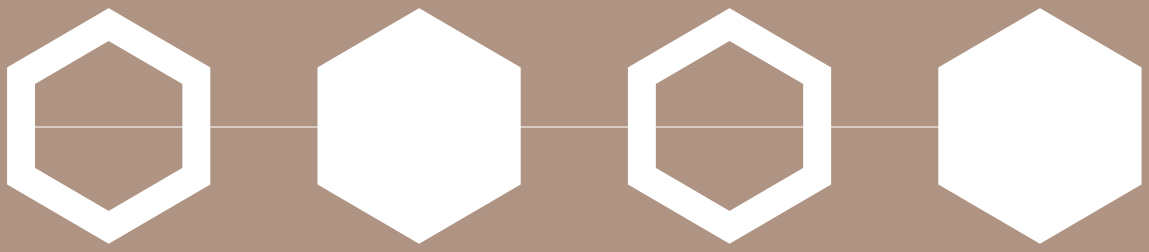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일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자신 있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막내 작가일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너 진짜 특이하다. 너무 자신만만하고, 자신감 넘치고, 자기 의견 얘기하는데 너무 당당해서 10년 차 작가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이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2018 상반기,

SPECIAL THEME

올해도 방송가에선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졌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데, 늘 새로운 것만을 좇아 시청자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고 마음을 빼앗아야 하는 것이 콘텐츠 제작자들의 숙명이다.
과연 어떤 콘텐츠에 시청자들이 열광했을까? 지난 상반기, 장르별 화제작을 분석해 보면서 그 성공의 방정식을 풀어가본다.

화제작을 통해 본 성공의 정석



1
문제적 현실을 직시하고 상처를 치유하다
윤석진
충남대 국문과 교수,
드라마평론가

2
‘관계성’과 ‘여성 먹방’에 주목하다
황진미
문화평론가

3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가까이
김교석
대중문화칼럼니스트

4
라디오 네버 다이
차우진
음악평론가

문제적 현실을 직시하고 상처를 치유하다

SPECIAL THEME

2018 상반기, 화제작을 통해 본 성공의 정석

장르는 좀 더 다양해졌고, 표현 수위는 보다 더 강력해졌다. 하지만 눈에 띄는 드라마는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았다. 2018년 상반기에 방영된 드라마들의 상당수가 야심 찬 기획에도 불구하고 도토리 키 재기 식의 시청률 경쟁을 벌이며 시간을 끌다가 차기작들에 밀려났기 때문이다. 특히 지상파 방송 드라마의 경우, 아무리 방송 플랫폼이 다변화되면서 지상파 방송의 위세가 예전 같지 않다 해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적이 좋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 드라마들의 허장성세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감추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나마 케이블 방송 tvN과 종편 방송 JTBC의 드라마들이 있었기에 체면치레가 가능했던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하겠다.



윤석진
충남대 국문과 교수, 드라마평론가

사회상을 담아낸 법정 드라마의 강세

생각해보면, 2018년 상반기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은 시기였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위기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위태롭게 교차했기 때문이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서 치러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과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으로 평화로웠다. 북한의 핵 개발 때문에 빚어진 일촉즉발의 전쟁에 대한 위기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다. 여기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여전히 강력했다. 하지만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 안정에 걸림돌이 되었다. 망국의 고질병이라고까지 일컫는 부동산 문제는 물론, 제조업의 붕괴와 고용 절벽에서 비롯한 실직과 청년 실업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상황은 상당 부분 2018년 상반기 드라마에 고스란히 투사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적 적폐 청산이나 경제 권력의 부조리한 현실은 법정 드라마의 핵심 에피소드로 차용되었다. 하지만 현실이 너무 드라마틱했기 때문인지, 안타깝게도 시청자의 이목을 사로잡은 드라마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SBS 드라마스페셜 <리턴>, KBS2 수목드라마 <슈츠>, MBC 월화미니시리즈 <검법남녀>, tvN 토일드라마 <무법 변호사>, JTBC 월화드라마 <미스 함무라비> 정도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본격적인 법정 드라마는 아니지만, JTBC 금토드라마 <미스티>도 상반기 화제작으로 꼽을 만하다.

<리턴>은 텔레비전 법정 쇼 '리턴'의 진행자이자 변호사가 촉법소년 출신 형사와 함께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는 상류층 4인방이 용의자로 지목된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다. 미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슈츠>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이기는 전설의 변호사와 천재적인 기억력으로 법전을 완벽하게 암기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인물이 가짜 변호사로 활약하는 상황을 통해 거대 로펌의 이면을 드러냈다. <검법남녀>는 법의학과 법과학적 지식을 모두 갖춘 법의관과 범죄의 최전방에서 타인을 판단해야 하는 금수저 출신의 초임 검사가 살인 사건들의 진실을 추적하면서 세상의 부조리를 고발했다. <무법 변호사>는 겉으로는 법조계 안팎의 존경을 받지만 실상은 죄 없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각종 이권을 독식하면서 거대 권력을 행사하는 악질적인 판사와 맞서는 젊은 변호사들의 활약상을 다뤘다. <미스 함무라비>는 이상주의 열혈 초임 판사와 원리원칙을 최우선으로 삼는 엘리트 판사의 시선을 통해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의 사연을 부각시켰다. <미스티>는 방송국 9시 뉴스 앵커로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어느 한순간 치정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전락한 여성의 욕망을 주목했다.

법정을 배경으로 한 일련의 드라마들의 공통점은 정치 권력의 부정부패와 경제 권력의 탐욕, 그리고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법정 드라마에서 구현되는 사법 정의는 현실 세계에서 느끼기 어려운 법적 카타르시스를 시청자에게 선사하였다. 이처럼 법정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이 여전히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현상은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공평무사해야 할 법 집행이 유독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식의 폐해를 해소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시청자의 열망이 법정 드라마의 강세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상반기는 드라마가 얼마나 현실 세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문제적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의 이면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성찰해서 드라마에 투사시키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작가의 통찰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시청자의 관심사에만 영합한다면, 드라마에서 차용한 문제적 현실은 단순한 장식물로 전락할 수 있다. 어쩌면 그래서 지상파 방송 드라마의 성적이 케이블이나 종편 방송 드라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섬세하면서도 예리한 작가의 시선으로 포착한 현실에 대한 극적 상상력이 드라마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청년 세대의 현실과 애환에 주목하다

그런가 하면, 삶이 고달픈 청년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문제적 현실을 성찰한 작품들도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청년 세대의 고단한 일상이야 예전에도 많이 다뤄진 소재이지만, 2018년 상반기 작품들에서는 보다 더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각기 다른 장르적 특성을 십분 활용한 tvN 토일드라마 <라이브>, tvN 수목드라마 <마더>와 <나의 아저씨>, JTBC 월화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와 금토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대표적이다.

<라이브>는 전쟁과도 같은 취업난 속에서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경찰공무원에 합격한 시보 순경들이 현장에서 부딪치는 사건 사고들을 통해 일상의 소중한 가치와 소소한 정의를 강조했다. 일본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마더>는 생모에게 버려졌던 기억을 갖고 있는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생모에게 학대받다 버려진 초등학생을 데리고 세상 밖으로 탈주하면서 엄마와 딸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모성의 의미를 성찰했다. <나의 아저씨>는 사채업자를 칼로 찔러 죽이고 다시 그 아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희망 없는 삶을 지탱하는 젊은 여자와 남들처럼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하고 결혼도 했지만 가족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중년 남자를 통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현실의 부조리를 재연했다. <으라차차 와이키키>는 시트콤 형식을 전유하여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꽉 막힌 현실을 살아가는 고달픈 청년들의 애환을 희비극적으로 그려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가족처럼 지내다가 연애를 시작한 연상 여자와 연하 남자의 로맨스 속에 뛰어난 업무 처리 능력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참아야 하는 회사 조직의 불합리와 성추행 문제를 사실적으로 담아냄으로써 청년 세대의 고단한 일상을 대변했다.

고용 절벽의 현실에서 아등바등 몸부림치는 청년들의 고단한 일상은 장르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주요 에피소드로 차용되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가해진 온갖 종류의 폭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출하면서 폭로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사회적 성격이 강한 장르는 물론 시트콤과 로맨스 장르에서까지 청춘의 로망보다 문제적 실상이 부각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드라마가 부조리한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일련의 법정 드라마에서 실제 현실과 다르게 사법 정의가 구현되는 결말을 통해 일종의 극적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일상 속 위로와 치유를 보여준 드라마

한편, 2018년 상반기 드라마 가운데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투사한 작품과 달리 일상의 고단함에 짓눌린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어루만져주는 방식으로 현실을 반영한 경우도 있었다. tvN 수목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KBS2 월화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 SBS 월화미니시리즈 <키스 먼저 할까요>가 그렇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모든 것이 완벽한 남자 주인공이 비서와의 연애를 통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유괴사건에서 비롯한 정신적 외상이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만난 기적>은 이름과 나이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방식의 인생을 대신 살게 된 남자가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키스 먼저 할까요>는 과거의 슬픈 인연으로 연결된 남녀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사랑하게 되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치유와 위안의 드라마들이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현실이 그만큼 고달프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년 상반기는 드라마가 얼마나 현실 세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문제적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의 이면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성찰해서 드라마에 투사시키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작가의 통찰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시청자의 관심사에만 영합한다면, 드라마에서 차용한 문제적 현실은 단순한 장식물로 전락할 수 있다. 어쩌면 그래서 지상파 방송 드라마의 성적이 케이블이나 종편 방송 드라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섬세하면서도 예리한 작가의 시선으로 포착한 현실에 대한 극적 상상력이 드라마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2017년 후반기에 시작하여 2018년 초에 종영한 드라마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음을 밝혀둔다.





거대 로펌의 이야기를 다룬 미국 드라마 리메이크작 <슈츠>, 젊은 여자와 중년 남자를 통해 현실의 부조리를 재연한 <나의 아저씨>.

‘관계성’과 ‘여성 먹방’에 주목하다

SPECIAL THEME

2018 상반기, 화제작을 통해 본 성공의 정석

2018년 상반기 예능 중 흥했던 프로그램들은 일정한 경향성을 지닌다. 첫째는 여행 프로그램이 강세를 이루는 가운데, 여유 있는 삶의 태도와 관계성의 미학이 돋보이는 <윤식당 2> <효리네민박 2> <꽃할배 리턴즈>가 좋은 반응을 얻었다. 둘째는 관찰 예능의 강세 속에서 여성 ‘먹방’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전지적 참견 시점> <밥블레스유> <나 혼자 산다>가 여기에 해당된다.

황진미



문화평론가
2002년 <씨네21>을 통해 영화평론가로 등단
<한겨레> <한겨레21> <엔터미디어> <창비 어린이> 등
각종 매체에 영화와 대중문화 관련 글 기고
공저 ≪사회적 영성≫ ≪제국의 변호인 박유하에게 묻다≫ 등

여행 예능 속 관계능력 <윤식당 2> <효리네 민박 2>

연초부터 <윤식당 2>가 화제였다. 일단 스페인 남부의 가라치코 마을의 이국적인 풍광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혹한에 시달리던 한국에서 따뜻한 지중해 마을의 풍경이 큰 위안을 안긴 데다, 인구가 적은 마을의 느긋한 분위기가 한껏 편안한 느낌을 준다.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작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이웃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던 주민들이거나 유럽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이었다. 그들의 소박하고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이 화면 가득 전해진다. 사실 한국에서 가장 큰 결핍을 느끼는 사치재는 '삶의 여유'일 것이다. 1편에서 막내로 출연하여 놀라운 배려심과 관계능력을 보여주었던 정유미가 과장으로 승진하고, 박서준이 새로운 막내로 들어왔다. 이는 정유미가 능력을 인정받아, 중간 가교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는 아르바이트생 박서준과 훌륭한 조화를 이루었다. 박서준은 홀서빙을 맡아 갈수록 존재감을 드러냈다. 유럽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훤칠한 외모에 세련된 태도가 눈길을 끌었는데, 그의 여유 있는 모습 이면에는 성실하게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짬짬이 체력을 단련하는 노력이 숨어 있었다. 박서준과 정유미는 여유 있는 삶의 태도와 유연한 관계능력으로, 프로그램의 취지와도 매우 잘 어울리는 느낌을 자아냈다.

<효리네 민박 2>도 비슷한 맥락을 지닌다. 시즌 1에서 제주의 멋진 풍광과 느리게 살아가는 이효리 부부의 라이프스타일은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시즌 2에서도 이효리 부부가 사람들을 환대하는 방식과 타인과 교감하는 능력은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이효리는 외국인 손님에게 짧은 영어로 계속 말을 걸었고, 이상순은 폭설을 맞은 유도부 소녀들을 위해 눈길 운전을 해주고,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되돌아온 소녀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시즌 2에서 직원으로 등장한 윤아는 못하는 것이 없는 똘똘한 살림꾼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또한 방구석에서 마이크를 잡고 열창할 정도로 흥이 넘쳤다. 윤아는 단기일꾼으로 온 박보검이나 손님들과도 어색함 없이 빠르게 친해지는 놀라운 관계능력을 보여주었다. 하기야 걸 그룹으로 십년 넘게 활동한 내공 중에는 뮤지션으로서 실력뿐 아니라 사회성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노년 배우들이 보여준 또 다른 관계성의 미학

<꽃할배 리턴즈>에서도 관계성의 미학이 돋보였다. 일반적으로 노인 남성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피되는 계층이다. 비단 '태극기 할배들'이 아닐지라도 냉전 시대와 고도 성장기를 거친 노인 남성들은 가장 권위적이고 경직된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이후 세대들과 소통되지 않는 이념적 단절을 겪는다. 하지만 <꽃할배>는 할배들이 모두 꼰대는 아니며, 흥미로운 존재일 수 있으며, 심지어 귀여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이 한 권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도 있듯이, 사실 할배들은 엄청난 경험과 스토리를 갖고 있다. 시즌 1은 할배들의 개성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지만, 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풀어놓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시즌 2에서 김용건이 투입됨으로써 할배들 사이의 말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건건이'란 별명으로 불리는 김용건은 '싱거운 사람'이다. 하지만 풍부한 인맥과 유연한 태도로 오랫동안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꽃할배 리턴즈>는 그의 관계능력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해준다. 또한 청출어람인 배우 하정우의 유난히 여유 있는 인터뷰의 태도와 느긋한 유머 감각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알게 해준다. 김용건은 사전 모임에도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선배들에게 깍듯이 인사를 건네는가 하면 현지에 도착해서도 운전 등 이서진의 잡무를 알아서 분담하였다.

그는 살가운 태도로 다른 할배들 사이를 이어주고, 너스레와 싱거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준다. 그는 세련된

2018년 상반기 예능 프로그램의 키워드는 '관계능력'과 '여성 먹방'으로 요약된다. 이는 앞으로 프로그램 기획자들이 주목해야 할 화두이기도 하다. 남자들이 떼로 나와 '라인' 운운하며 기 싸움과 줄서기를 해대던 〈무한도전〉 류의 '알탕 예능'의 시대가 저물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는 유연한 관계 맺기가 돋보이는 예능이 흥할 것이며, 여성들의 욕망과 해방에 주목하는 프로그램이 사랑받을 것이다. 부디 시대의 징후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패션 감각과 섬세한 배려로 권위적이거나 고집스러운 꼰대와는 가장 거리가 먼 노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꽃할배 리턴즈>의 성공은 이 시리즈의 할머니 버전에 대해서도 상상하게 만든다.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나 영화 <허스토리>에 출연했던 노년 여배우들이 함께 여행을 다닌다면 얼마나 재미날 것인가. <허스토리>에서 담배를 피워 물던 예수정은 <신과 함께>에 나왔던 판에 박힌 엄마 예수정과 얼마나 다른 사람이던지. 노년의 여배우들에게 숨겨진 개성을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실컷 보고픈 사람이 적진 않을 것이다.

여성 먹방의 위력 <전지적 참견 시점> <밥블레스유> <나 혼자 산다>

<전지적 참견 시점>은 원래 연예인과 매니저들 사이를 보여주는 관찰 예능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화제에 오른 것은 '영자미식회' 덕분이었다. 이영자는 여행 도중 어쩔 수 없이 요기하던 곳으로 여겨지던 휴게소를 맛집으로 격상시켰고, 싸구려 음식 취급을 받던 군것질을 완판 시켰다. 잘나가던 이영자의 '먹방'은 어이없는 자막 사건으로 두 달 가까이 결방되었지만, 다시 시작된 방송에서 건재함을 과시하였다. 이영자는 특유의 시청각적인 묘사를 통해 음식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드러낸다. 이영자의 '먹방'은 이후 맛집 셰프와의 '썸'으로 이어지고 있다.

<밥블레스유>는 <김생민의 영수증>이 폐지되고, <전지적 참견 시점>이 방송중단을 겪을 시기에 송은이, 김숙, 이영자에 대한 동정여론과 여성 예능에 대한 요구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도출된 프로그램이다. 송은이, 김숙, 이영자, 최화정의 놀라운 식욕을 보여주는 이 프로그램은 여성주의 '먹방'을 추구한다. 그동안 쿡방과 먹방들이 요리나 먹는 행위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 프로그램은 음식을 삶의 맥락에 위치시키며, 어떨 때 누구와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프로그램은 정글 같은 방송계에서 오래 살아남은 비혼의 중년 여성들이 웃고 떠들며 먹는 모습을 통해 비혼으로 나이 듦을 두려워하는 여성들에게 롤 모델을 제공한다. 또한



<밥블레스유>는 그동안 쿡방과 먹방들이 요리나 먹는 행위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 프로그램은 음식을 삶의 맥락에 위치시키며, 어떨 때 누구와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사진 설명 : <밥블레스유> 홍보 이미지

이들의 엄청난 식욕은 그동안 여성을 옥죄었던 다이어트 강박을 해제시킨다. 여기에 음식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풀어주는 설정으로, 음식이 지닌 '힐링의 힘'을 오롯이 일깨운다.

<나 혼자 산다>는 2013년에 시작된 장수 프로그램으로, 2017년 연말 시상식의 상을 휩쓸 정도로 MBC의 독보적인 예능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2016년에는 폐지위기를 겪었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관찰 예능으로 관심을 끌었지만, 후발주자인 <미운 우리 새끼>에 잠식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에 출연진들이 새로 꾸려지면서, 과거 <무한도전>이 그랬던 것처럼 충성도 높은 팬층이 확보되었다. 출연자들을 친구처럼 느끼고 이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는 고정 시청층이 생긴 것이다. <나 혼자 산다>가 지금과 같은 인기를 누리게 된 데 일등 공신은 박나래이다. 그는 튀는 의상과 분장으로 눈길을 잡을 뿐 아니라, 자기 집을 '나래바'로 꾸며놓고 지인들을 초대해 술안주를 요리해 내놓는다. 잔잔한 일상을 비추는 관찰 예능에서 그의 범상치 않은 라이프스타일과 만만치 않은 요리 실력은 상당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올 상반기 <나 혼자 산다>의 일등공신은 마마무의 화사다. 그는 놀라운 '혼밥'의 경지를 보여주었다. 대낮에 아무도 없는 곱창집에 가서 혼자서 곱창 3인분을 구워서 거하게 먹어치웠다. 그의 곱창 먹방이 SNS에서 무수한 짤방으로 돌아다니게 되었고, 방송에 나온 곱창집은 대기시간이 2시간이 되었다. 심지어 전국의 한우곱창이 품절되는 사태를 빚어, 한국축산부산물중앙회에서는 화사에게 감사패와 곱창상품권을 전달하는 만담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지금껏 살펴본 2018년 상반기 예능 프로그램의 키워드는 '관계능력'과 '여성 먹방'으로 요약된다. 이는 앞으로 프로그램 기획자들이 주목해야 할 화두이기도 하다. 남자들이 떼로 나와 '라인' 운운하며 기 싸움과 줄서기를 해대던 <무한도전> 류의 '알탕 예능'의 시대가 저물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는 유연한 관계 맺기가 돋보이는 예능이 흥할 것이며, 여성들의 욕망과 해방에 주목하는 프로그램이 사랑받을 것이다. 부디 시대의 징후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가까이

SPECIAL THEME

2018 상반기, 화제작을 통해 본 성공의 정석

올 상반기 늘 '노잼'으로 인식되던 시사교양 콘텐츠들이 신선한 기획과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성역 없는 탐사 보도로 TV 편성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김교석
대중문화칼럼니스트

조금 더 가볍고, 한결 더 대담하게

변화의 시작 또한 스스로 만들었다. 언론학 교과서에 워터게이트 사건과 함께 기록될 JTBC의 태블릿 보도 이후 대중의 높아진 정치의식에 시사 콘텐츠는 눈높이를 맞추기 시작했다. 파업과 파행, 불합리가 계속되던 지난 10년간 SBS를 제외하고는 대가 끊겼던 공중파 시사교양국은 올 상반기 재건을 위한 날갯짓을 펼쳤다. 이런 노력 덕분에 정론, 중립이란 미명하에 시력을 거의 잃을 뻔했던 감시자의 눈은 견해를 가진 뉴스와 눈치를 보지 않는 취재로 일정 부분 회복됐다.

이처럼 새로운 물결로 출렁이고 있는 오늘날 시사교양 콘텐츠의 키워드는 '가벼움'이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을 만큼 입을 열기가 가벼워졌고, 체통과 관습을 벗어나면서 행동과 사고 또한 가벼워졌다. 그러다 보니 정직하게 보고 할 말을 하는 분위기가 방송가에 형성됐다. 이는 '송사를 피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내건 MBC <PD수첩>의 올 상반기 활약상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흔들리는 사법부, 국정원과 가짜 보수, 미투 운동의 불씨를 댕긴 보도와 장자연 사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등 굵직하고 민감한 이슈를 연이어 다루면서 언론 중 자칭 가장 펀치력이 세다고 알려진 조선일보와 전면전을 펼쳤다. 또한 추적 저널리즘을 표방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삼성을 물고 놓지 않고 있고, 언론 최초로 사법 판결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실험적인 토크쇼 <판결의 온도>도 선보였다. 조선일보, 삼성, 사법부를 상대로 체급을 올려 경기를 하니 관중이 몰리기 시작했다.

의도적 오보가 의심되는 YTN의 보도를 첫 주제로 다루면서 나름 화려하게 시작한 KBS의 언론비평 프로그램 <저널리즘 토크쇼 J>도 할 말은 하는 방송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미디어 인사이드>를 폐지한 후 2년 만에 다시 편성한 KBS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으로 장자연 사건과 대법원의 사법 거래 논란 등과 관련해 특정한 프레임을 짜려는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도 화제가 됐다. 이외에도 KBS는 <엄경철의 심야토론>, <사사건건> 등 그간 공중파에서 피해왔던 견해를 가진 시사 프로그램들을 본격 편성했다.

쇄신을 향한 공중파 시사교양의 활발한 움직임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가장 신뢰받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살아 있는 권력이라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경기도지사에 관한 검은 의혹을 단독 보도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또한 SBS는 공중파 최초로 팟캐스트 스타일의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편성해 반향을 일으켰다. 이처럼 시사 프로그램들을 시작으로 활발한 에너지와 성취감이 시사교양국 전반으로 퍼져나갔다. 올 한해 새로 선보인 공중파 시사교양 프로그램만 10여 편에 이르는데, 출연진부터 다루는 대상과 풀어가는 방식이 각양각색이다.

이러한 흐름 창출에는 돌아온 MBC가 가장 적극적이다. 매주 금요일 9시 대를 교양 파일럿 존으로 신설해, <판결의 온도> <할머니네 똥강아지>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를 연이어 선보였고 모두 정규 편성했다. 그 외에도 5분 동안 각 분야 셀러브리티들이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소감과 얽힌 이야기를 발표하는 서평 파일럿 프로그램 <비블리오 배틀>을 지난 8월 초 방송했고, 방송인 노홍철, 유재환 등이 아나운서들과 함께 견해가 깃든 뉴스 전달을 목표로 하는 아침 시사 정보 프로그램 <아침발전소>를 올해 3월 초부터 방송 중이다.

자세를 낮추고 당위만큼이나 스토리텔링에 포커스를 두면서 더 많은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봐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 보고 싶게 만드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포부와 그 밑에 깔린 절박함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여러 경쟁 매체들과 달리 공적인 책무가 있는 (공중파) 방송 콘텐츠만의 존재 이유를 더욱 선명하게 내세우고,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다. 지난 몇 년간 매몰되었던 대중 강연 일색에서 벗어난 대중화 전략이란 점도 높이 살 부분이다. 다만,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계속된다. 예능화 전략의 끝에는 결국 〈할머니네 똥강아지〉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와 KBS2 〈살림남 2〉 〈아빠엄마는 외계인〉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도사리고 있다. 예능의 작법으로 풀어내기 어려운 많은 이야기들은 다시 더 거대한 절벽을 마주하며 외면받을 수도 있다.

딱딱함을 벗어던진 시사교양의 예능화

흥미로운 것은 시사교양을 예능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공통된 접근법이다. MBC는 무게를 덜고 웃음을 더하는 일련의 예능화 작업을 통해 점잖다 못해 권위적이고 고루했던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탈바꿈하려 한다. 이른바 예능의 형식과 접근을 차용한 '교양 예능' 콘텐츠의 출현이다. 대중들에게 더욱 가볍고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친숙한 연예인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고, 다큐멘터리의 제작 방식을 바탕으로 발전한 관찰형 예능의 스토리텔링 작법을 도로 가져와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접목하기 시작했다.

법률 토크쇼를 내세운 <판결의 온도>는 <썰전>과 같은 시사 토크쇼처럼 보이지만 실은 <라디오 스타>나 종편의 종합정보쇼와 유사한 면이 있는 예능 토크쇼의 틀을 갖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에 의문을 던지는 만큼 법리에 대한 설명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주진우 기자는 사법부 구성원의 현저하게 떨어지는 공감 능력이나 권력에 의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장하는 등 수위 높은 민감한 발언이 수도 없이 나온다. 그러나 편을 갈라 논쟁을 벌이는 시사 토크쇼와 달리 출연진들이 각자 캐릭터에 맞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예능 토크쇼 방식을 지향하며 자극을 최소화한다. 방송인 송은이와 서장훈, 사유리는 중간에서 중화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할머니와 손주의 사랑스런 관계를 들여다보는 <할머니네 똥강아지>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는 며느리의 시선으로 가족 관계를 풀어내는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는 오늘날 대세인 가족 예능의 작법 및 소재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가족의 일상을 관찰하고, 스튜디오에서는 화면을 보면서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영락없는 가족 관찰 예능이다. 따지고 보면 관찰형 예능이 다큐멘터리의 촬영 기법과 스토리텔링 작법을 빌려서 완성된 장르인 만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시사교양국 제작이란 타이틀만 없으면 형식과 내용 모든 측면에서 다른 가족 예능과 별 다를 바가 없다. 관련해 작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유시민, 정재승 등 인문·과학자들이 여행 예능의 출연진처럼 활약한 <알쓸신잡> 시리즈는 시사교양의 예능화를 촉진한 기폭제이자 견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능인, 방송인들도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점점 더 많은 얼굴을 비추고 있다. 앞서 언급한 노홍철뿐 아니라 김구라, 배철수, 전현무, 김용만, 김국진, 강수지, 서장훈, 송은이, 강유미, 사유리, 김의성, 김가연, 이현우, 권오중, 이지혜, 양세형, 장영란, 최욱 등등으로 이어지는 명단은 잘 나가는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진이 아니라 교양 프로그램에서 만날 수 있는 방송인들의 이름이다. 최근 KBS가 새로운 심야 시사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사회자로 김제동 카드를 만지고 있다는 뉴스도 들려온다. 기획 단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만큼이나 대중과의 소통 선로를 어떻게 뚫을지 고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다.

시사교양만의 작법과 콘텐츠에 대한 고민

그동안 TV 콘텐츠의 위기가 거론될 때 시사교양국의 위기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 이전부터 이미 충분히 심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사 콘텐츠들이 견해를 갖기 시작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예능에 빌려줬던 자신들의 노하우를 역수입해 예능과 시사교양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자세를 낮추고 당위만큼이나 스토리텔링에 포커스를 두면서 더 많은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봐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 보고 싶게 만드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포부와 그 밑에 깔린 절박함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여러 경쟁 매체들과 달리 공적인 책무가 있는 (공중파) 방송 콘텐츠만의 존재 이유를 더욱 선명하게 내세우고,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다. 지난 몇 년간 매몰되었던 대중 강연 일색에서 벗어난 대중화 전략이란 점도 높이 살 부분이다. 다만,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계속된다. 예능화 전략의 끝에는 결국 <할머니네 똥강아지>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와 KBS2 <살림남 2> <아빠엄마는 외계인>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도사리고 있다. 예능의 작법으로 풀어내기 어려운 많은 이야기들은 다시 더 거대한 절벽을 마주하며 외면받을 수도 있다.

올해 시사교양 장르는 예능과의 결합과 보다 치열한 탐사 보도로 기존에 없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까지 성공했다. 그러나 시사교양만의 작법과 콘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은 여전히 남는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경쟁력은 예능화 전략으로 갖춘 것이 아니며, MBC의 예능화 전략은 수치상 아직 성공이라고 평하기에 이르다. 한층 가벼워지고, 한 걸음 더 가까워졌으니, 더욱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다음 발걸음을 계속 내디뎌야 할 것이다.



법률 토크쇼를 내세운 <판결의 온도>는 <썰전>과 같은 시사 토크쇼처럼 보이지만 실은 <라디오 스타>나 종편의 종합정보쇼와 유사한 면이 있는 예능 토크쇼의 틀을 갖고 있다.

라디오 네버 다이

SPECIAL THEME

2018 상반기, 화제작을 통해 본 성공의 정석

‘라디오는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은 1950년대 TV가 출현했을 때, 2000년대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됐을 때, 그리고 2010년경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했을 때 늘, 등장한 말이다. 라디오의 위기는 늘 새로운 매체가 나타날 때마다 왔다. 하지만 라디오는 아직까지 살아남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 같다. 이유가 뭘까?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차우진
음악평론가
저서 ≪청춘의 사운드≫ ≪대중음악의 이해≫

라디오는 계속된다

먼저 동시성이다. 이건 정서와도 연결되는 얘기다. 사실 스마트폰 시대에 소리를 전달하는 매체는 많다. 음악 서비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자의 취향을 판별해 듣기 좋은 노래를 골라준다. 한 달에 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내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음악'만' 들을 수 있다. 게다가 유료다. 음악이란 원래 감성과 직결되어 음악 자체의 매력보다 그에 얽힌 기억과 감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음악은 음악 그 자체보다 음악에 다른 뭔가가 연결될 때 파급력이 커진다.

라디오의 경우는 음악을 틀면서 감상과 사연을 함께 내보낸다. 라디오만 가능한 일이다. 덕분에 청취자는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가 아니라 진행자와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참여자가 된다. 사람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팟캐스트도 마찬가지다. 팟캐스트는 짧게는 30분, 길게는 55분 정도의 길이로 2명 이상의 출연진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이다. 여기서 청취자는 말 그대로 청중이 된다. 길게 이어지는 대화에 개입할 수가 없다. 일방적으로 듣는 입장이 된다. 음악과 사연을 주고받는 라디오와는 다르다.

다음으로 현장성이다. 라디오는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여기서 메시지는 사연이기도 하지만 사고나 재난 현장의 상황일 수도 있다. 특히 문자가 아니라 음성이라는 점에서 즉각적이다. 카메라가 이동할 필요 없이, 소리로 상황을 전달한다. 교통방송의 통신원 체제가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유연성이다. 라디오는 전파를 이용하는 매체 중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므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흡수와 결합이 가능하다. 가장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일 것이다. 스마트폰 시대에 라디오가 사라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스마트폰에 FM 수신기를 부착하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라디오 기기가 전화기로 대체될 뿐 라디오 방송 자체의 기능과 역량이 대체되는 건 아니다.

개성을 부각하는 라디오 환경의 변화

이런 맥락에서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의 변화도 인상적이다. MBC 라디오에서 새벽 3~4시에 비틀스의 음악만 방송하는 <조 PD의 비틀즈 라디오>는 버티컬 콘텐츠의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틀스를 'Yesterday'나 'Hey Jude' 정도로만 알고 있던 음악팬들에게 비틀스 음악의 다양한 활용과 사례를 전달해준다. SBS 라디오 <배성재의 텐>은 청취자들과 소통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 외에 카카오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라디오 방송과 인터넷 방송의 포맷을 결합시키는 시도인 셈이다. 이런 특징 덕분에 다른 방송에서 듣지 못한 '드립'도 자주 들을 수 있고, 그만큼 화제와 논란을 만들기도 한다.

이외에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유명한 인물들을 진행자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CBS 라디오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의 임시 진행자로 유튜브로 유명한 1인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을 선정했다. 정관용 진행자가 휴가를 떠난 8월 15일부터 24일까지 이 프로그램을 맡은 대도서관은 정치·사회·문화계 명사들을 초대해 본인의 유튜브 구독자들에게서 받은 질문을 직접 던지는 '대질문쇼'란 코너를 진행했다.

본질적인 것은 더욱 중요해진다. 역설적이게도, 방법이 다양해질수록 사람들은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원한다. 그래야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때 라디오의 본질은 소통과 교감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동시성, 현장성, 유연성이야말로 라디오가 가진 기능적 특징이지만, 동시에 그걸 지나치게 앞세우면 라디오는 차별화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작용하는 맥락, 라디오가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이유를 다시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 새로운 사례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스마트폰의 FM 수신 기능도 라디오의 사회적 역할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지만, 그걸 계기로 많은 실험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술적 투자와 양방향 소통, 공감과 지금 누군가 함께 있다는 감각을 어떻게 결합하느냐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미디어 전환기에 라디오야말로 자기만의 역할과 기능,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고 있는 중이다.



<배성재의 텐>은 청취자들과 소통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 외에 카카오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라디오 방송과 인터넷 방송의 포맷을 결합시키는 시도인 셈이다.

원래 시사에 관심이 많았다는 대도서관은 "정치·시사 분야를 어렵게 느끼는 일반인, 특히 젊은 친구들도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서 질문해보자는 제작진의 제안이 신선하게 느껴져 수락했다"고 출연 이유를 설명했다. 기존 시사 프로그램의 틀을 깨는 시도로,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어쨌든 신선한 시도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시대에 시사 프로그램은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는 라디오 방송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포맷과 시의성으로 화제다. 개인적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자주 듣는데, 그때마다 그 순발력과 질문의 깊이, 김현정 앵커의 찌르듯 파고드는 인터뷰 능력에 감탄한다. 이것은 팟캐스트도, TV 방송도, 유튜브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다. 오직 라디오니까 가능한 일이다. 시사 프로그램이야말로 시의성과 순발력, 그러니까 동시성과 현장성이 중요하다. 음성은 콘텐츠 변환과 수급도 용이하다. 결국 라디오의 미래는 개인의 역량을 시스템이 지원하는 방법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진행자, 제작자 등 만드는 사람들의 개성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제작 환경이야말로 이 위기 혹은 변화의 소용돌이를 피할 키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대중이 원하는 것, 라디오의 본질

결국, 문제는 눈높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 '눈높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방송가에서 '중학생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다. 이것은 방송을 제작하는 입장의 엘리트주의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눈높이'란 수용자가 우선이 되는 관점이다.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정확한 타깃팅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마케팅적 관점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이전에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 그 결과는 자연스레 뒤따르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처럼 미디어 환경이 복잡해지고 다양화해진 상황에서는 먼저 '좋은' 콘텐츠의 정의부터 하고 그에 맞는 전달 방식, 형식, 이후의 평가까지 이뤄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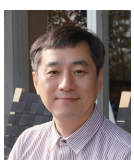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본질적인 것은 더욱 중요해진다. 역설적이게도, 방법이 다양해질수록 사람들은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원한다. 그래야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때 라디오의 본질은 소통과 교감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동시성, 현장성, 유연성이야말로 라디오가 가진 기능적 특징이지만, 동시에 그걸 지나치게 앞세우면 라디오는 차별화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작용하는 맥락, 라디오가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이유를 다시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 새로운 사례가 가능할 것이다. <비틀즈 라디오>도 <배성재의 텐>도, 임시지만 유튜브로 성공한 대도서관의 라디오 진행 역시 이를 바탕으로 한다.

현재 논의 중인 스마트폰의 FM 수신 기능도 라디오의 사회적 역할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지만, 그걸 계기로 많은 실험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술적 투자와 양방향 소통, 공감과 지금 누군가 함께 있다는 감각을 어떻게 결합하느냐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미디어 전환기에 라디오야말로 자기만의 역할과 기능,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고 있는 중이다.

라디오는 이제까지 지역에 상관없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자체 앱, 인터넷 카메라를 통한 보이는 라디오, 앱을 통한 실시간 채팅 등으로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왔다.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변화에 대응하는 중이다. 사실 이런 상황은 라디오가 탄생한 이래 꾸준히 이어진 일이다. 그때마다 위기를 돌파했던 것은 라디오 수신기라는 기기와 라디오 방송이라는 콘텐츠를 별개로 생각했던 이유가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라디오의 콘텐츠와 그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촘촘하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Z세대의 등장과 동영상 정보 : 포털사이트 방송의 책임과 현명한 정보소비자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
인터넷 정치사회 현상에 관한 분석과 인터넷 정치참여, 인터넷 정치커뮤니케이션 등 관련 연구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과제에 관한 탐색' ≪사회이론≫ (2018, 공저),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 ≪시민사회와 NGO≫ (2017),
'SNS 사용자 집단의 네트워크 특성과 정치참여 인식에 관한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2017, 공저) 등

동영상 정보를 소비하는 Z세대의 등장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야말로 '정보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인터넷이 한국에서 상용화된 지 4반세기,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 불과 9년 만에 우리의 삶과 생활은 정보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 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보 소비 트렌드가 주류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정보의 신속성과 소비의 편리성은 검색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에서 유무선 환경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검색은 세 살 먹은 아이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급되었다. 실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사용자 통계 기준이 3세 이상이다. 특히 포털을 이용한 정보검색은 여러 장점이 있어 많은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첫 화면을 지정해두거나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 앱을 깔아서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가 되었다.

이처럼 정보검색과 인터넷에 친숙한 세대를 넷세대(net generation),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등 학자마다 다른 용어로 부르지만 최근 'Z세대'로 부르고 있다. Z세대는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에 출생해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세대로,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성향을 가진다. 어려서부터 디지털 마인드가 강해서 미디어와 정보수용도 텍스트보다는 동영상을 중심으로 소비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직접 찾아서 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Z세대의 성향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보고 듣는 방식으로 검색의 방향도 바뀌고 있다. 젊은층 상당수는 이른바 '~하는 방법(How to~)'을 검색하고 동영상을 중심으로 소비가 진행된다.

이들은 과거 세대와 달리 동영상을 정보검색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영향으로 이들을 타깃팅하여 글로벌 기업인 구글의 유튜브를 비롯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서도 이름은 달리하지만 동영상 정보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동영상 정보의 장단점

동영상 검색의 장점은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유용하다. 단순한 텍스트, 이미지가 아니라 동영상을 통해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사용자는 사실감 있는 정보를 얻게 된다. 사실감 있는 정보이다 보니 사용자가 따라 하기 편리하다는 점도 사용자들을 유입하는 한 장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동영상 검색서비스 방식이 반드시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검증되지 않은 동영상 서비스로 인한 피해도 등장하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의 동영상 검색을 통해 추천을 받은 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와 잘못된 정보로 인한 사례도 언론에 보도되었다. 정보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일부 학자들은 지나친 동영상 검색 중심의 정보 소비가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한다.

첫째, 동영상 정보는 자칫 정보 편식을 가져올 수 있다. 동영상 정보의 핵심인 유튜브의 경우, 유사정보를 같이 제공하는 플랫폼 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한 번 동일정보에 빠지면 유사정보가 계속 노출되고,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능력은 한정되고 만다. 동영상 정보가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가지거나 상업적 목적을 가질 경우 이런 폐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둘째, 잘못된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동영상 정보는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관계에서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 동영상 정보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 또는 필요에 의한 정보를 업로드 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자칫 허위정보를 확산할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동영상 정보검색의 주류를 차지하는 10대와 20대는 허위정보로 인한 현실에 대한 왜곡 또는 잘못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피해 확산

셋째, 무엇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동영상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앞서 제기한 포털사이트의 동영상 정보를 믿고 인테리어 시공을 했다고 피해를 보거나, 잘못된 정보로 건강상의 무리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는 다반사다. 포털사이트의 동영상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존재하는데 사용자들은 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부 동영상 정보의 경우 음식점, 브랜드 소개를 노골적으로 하는 등 영리적인 활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의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약관을 개정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 동영상 정보 사이트이다. 이들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 되고 있다.

우리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그 속에 숨어 있는 마케팅이나 기술적 단점은 잘 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 작동원리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 SNS 보급 초창기에 개인정보 유출문제로 인한 피해를 보았던 것도 결국에는 SNS의 기술적 구조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단순한 미디어 리터러시만 필요했다면, 이제는 기술적인 이해와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 능력도 같이 요구되는 것이다.

포털 동영상 추천 상위에 있다고 좋은(?) 정보는 아니다

무엇보다 사용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플랫폼으로서 포털(네이버, 다음, 구글 등) 속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포털은 정보를 찾는 기능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이다. 과거식으로 하면, 장터를 열어주는 개념이다. 언론사가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과 같은 것이다.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신문 지면이나 방송시간을 할당받아서 광고를 하고 소비자들에게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사용자들은 포털 플랫폼에 동영상이나 관련 정보가 게재되면 마치 포털이 공신력을 인증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실제 몇몇 사례를 본다면, 단순히 포털의 동영상 제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뢰해서 피해가 커지기도 한다. 물론 포털 역시 유통의 책임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모두 믿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일부의 경우 광고 차원에서 동영상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무조건 상위에 랭크 되는 정보가 믿을만한 좋은 정보는 아니다. 사용자는 이를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명한 정보, 현명한 동영상 정보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사용자들의 현명한 대응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직 한국에서 정보사회의 다양한 부정적인 문제에 관한 대응방법에 관한 교육이 부재하다. 일부 초·중학교와 대학에서 정보사회 윤리를 다루고 있지만 지나치게 당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져서 발 빠른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영상이건 일반 정보이건 그 정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보다는 이 정보의 신뢰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의 책임을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응책 고민도 필요하다. 동영상 검색이 광고로 변질된다면 다른 차원의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일부 파워 블로거의 상업적 활동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 이후 블로거들 사이에서 영리활동에 대한 자율규제(self-regulation)와 합의가 만들어졌다. 그

런 차원에서 동영상 정보가 단순한 정보를 넘어 마케팅이나 영리활동을 할 경우 영리활동에 관한 규제와 대책도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자칫 규제 일변도로 치우칠 경우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용자들 간의 자율적인 규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다. 단순히 장을 제공하는 유통자라고 해서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 법체계상 불법정보를 유통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 현행법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용자들의 자율적인 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 광고 동영상 정보에 대해 제재를 하거나, 계도 활동을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함부로 동영상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현행법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플랫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의 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법규제도 수반되어야 한다. 개인과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정화와 규제 노력, 그리고 사용자들의 협업 신고 등을 바탕으로 도를 벗어난 뚜렷한 범죄적·악의적 목적의 동영상 정보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적 제재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행법(형법, 정보통신방법 등)은 이러한 규제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입법보다는 현행법의 탄력적인 적용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터넷 리터러시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단순히 교육이 아닌 실생활에서의 피해를 대비한 계도와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등 다층위의 장단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사용자들은 포털 플랫폼에 동영상이나 관련 정보가 게재되면 마치 포털이 공신력을 인증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포털 역시 유통의 책임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모두 믿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일부의 경우 광고 차원에서 동영상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무조건 상위에 랭크 되는 정보가 믿을만한 좋은 정보는 아니다. 사용자는 이를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자기표절’의 정치학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 한국방송작가협회 고문변호사

‘아이코’의 강박증

동갑내기 일본 작가로 ‘오쿠다히데오奥田英郎’란 사나이가 있다. 일본에서 문학상도 꽤 여러 번 받았고, 단행본 ≪공중그네≫는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팔렸다. ≪공중그네≫에 수록된 단편 <여류작가>는 이미 써 먹은 이야기를 재탕하는 게 아닌지 강박증을 느끼는 소설가를 주인공으로 한다. 주인공 ‘아이코’는 새 글을 쓸 때마다 극중 인물의 직업도, 에피소드도, 문장도 새로워야만 한다고 노심초사하는 인물이다.

소설의 문장을 옮긴다. “이건 분명히 썼던 거다. 이번에야말로 틀림없다. 그런데 왜 구상하는 단계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아이코’는 황급히 리스트를 펼쳐들고 제목과 등장인물을 눈으로 좇았다. 없었다. 아냐, 그럴 리가 없어. 못 보고 지나쳤겠지. 또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하는 건가. 갑자기 맥박이 빨라졌다. 동시에 구역질이 맹렬하게 솟구쳐 올라 의자에서 일어서자마자 위 속에 든 것들을 키보드 위에 토해냈다. … 다시 한번 리스트를 확인해보니 쓰지 않은 게 분명했다. 그런데도 다시 쓰기 시작하자 또 다시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쉬는 게 좋을까? ‘아이코’는 키보드 코드를 잡아 뽑아 부엌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이영미 옮김, 은행나무, 2006, 282쪽)

‘표절’과 ‘자기표절’

변호사 업무로 바쁘던 시절, 대학교수들이 어울린 저녁 자리에 끼었었다. 어느 교수가 꼴 보기 싫은 누구인가를 지칭하며 떠들었다. “그 자식, 내가 한 방에 날릴 수 있어. 박사과정 애들 동원해서 자기표절 뒤지면 금방 끝나!” 아하, 이런 거구나, 이른바 ‘자기표절’이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삽시간에 이해가 되었다. 인문학이나 예술계에서 전작前作에서의 자신의 서술이나 작풍作風을 다시 이용하는 행위를 ‘자기표절(self-plagiarism)’이라고도 한다. 어느 엉뚱한 이가 장난삼아 만들어 쓰기 시작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결코 법률가의 용어는 아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자신이 표절하다니, 형용모순形容矛盾의 극치로만 여기고 넘어갔다. 그런데 이 단어가 2006년경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 절차에 등장하여 대단한 정치력을 발휘하였다. 강고한 진영논리에 힘입어 상대편 공직후보자를 ‘표절’로 공격하더니 ‘자기표절’로까지 공격의 방향이 튀었었다.



표절, 저작권 침해와 자기표절은 구분지어 논의되어야 한다.

표절剽竊은 타인의 영혼을 훔치는 행위이다. 기껏 자신의 표현을 재활용하는 자기표절과는 불량성의 급이 다르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그 범주가 정확히 겹치지는 않지만 대체로 표절은 저작권 침해로서 형사처분의 대상이다. 저작권 침해는 남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이용하는 행위이나, 표절은 남의 저작물을 '내 것인 양 사칭'하므로 더욱 불량하다는 평가도 따른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는 폭발적이다. 혹자는 '표절'이라는 낙인효과의 불량한 뉘앙스를 노리고 '자기표절'을 들먹거릴 테다.

한양대 로스쿨의 박성호 교수는 일본의 저작권법 주석서에서는 물론 ≪廣辭苑≫, ≪大辭林≫ 같은 큰 사전에서도 '자기표절'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판 '구글'이나 '야후'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기는 하는데 거의 2006년 교육부총리 김병준 사태 이후 한국 신문기사의 번역문이라는 것이다("자기표절, 저작권, 그리고 민주시민사회", 한양법학, 제21권 제2집). 미국 학계에서도 '자기표절'이라는 표현 자체의 모순을 이유로 recycling fraud, text recycling, text reuse 등 표현을 사용한다는 보고도 있다.

연구자의 자기표절?

수년 전 여름 방학 무렵에 어느 시골대학으로부터 '자기표절' 사건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 대학교수 여럿이 동료를 상대로 '자기표절' 신고를 하였단다. 자기표절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총대를 멨다는 교수의 배경설명이 웃겼다. 학부 학생들이 동료 교수의 '강의안'과 논문 몇 편을 가져와 제보를 했는데, 실제로 강의안과 논문의 여러 부분이 겹쳐서 화들짝 놀랐다고 했다. 학생들이 직접 표시를 하였다며 형광펜투성이 복사물을 잔뜩 보내왔다.

대충 내 의견은 이랬다. "이른바 '자기표절'은 용어부터가 잘못되었다. '표절'이란 대체로 범죄행위인 저작권 침해를 뜻하므로, '자기표절'이라는 프레이밍(framing)에서 공격하는 쪽의 의도가 엿보인다. 먼저 이 사안은 '자기표절'이 아니라 '연구윤리 위반' 혹은 '중복게재'로 분류하여야 맞다. '중복게재'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표지갈이'하여 이중으로 연구실적으로 이용하거나 연구비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하고, 넓게는 자신의 선행 연구실적을 과도하게 후행 연구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보내주신 자료를 정밀히 검토한 바, 자신의 출판되지 않은 '강의안'의 내용과 출판한 '논문'의 내용이 겹치는 점은 아예 중복게재와는 무관하고, 출판된 논문 사이의 일부 문단이 겹치는 문제 또한 특정 주제에 천착하여 연구의 내용을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학자의 글쓰기에서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연구 성과를 의도적으로 묵비하고 새로운 연구로 과대 포장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락마다 각주에서 출처를 상세하게 달지 않은 점을 탓할 수는 없다. 결론으로, 피신고인에게는 연구윤리 위반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 자료를 읽고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여러 번 분노가 치밀었다. 어떤 내밀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학부 학생들의 제보에 빙자하여 동료 교수를 공격한다는 천박성에 소름이 끼쳤다. 통상 이런 사안이면 몇 번 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상례이다. 성적처리를 끝낸 후 바로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서면으로 의견만 보냈다. 훗날 결과가 궁금하여 그 대학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담당자는 세 분에게 의견 요청을 하였는데, 다른 두 위원도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주었다고 답하였다. 일면식도 없는 두 분도 같은 의견이라니 다행이다 싶었다.

대법원 판결문에서까지

최근 대법원이 '자기표절'이라는 단어를 법률 용어로 승격시켰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정부 출연기관이 연구원을 해고하면서, 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의 '자기표절'을 이유로 들었다 자신의 석사논문을 인용표시 없이 박사논문에 썼다는 점이 '자기표절'의 쟁점이다. 항소심에서는 '자기표절'이라는 표현을 피하여,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에 재활용하였다 하더라도) 박사학위 논문에 석사학위 논문과 다른 주제와 새로운 논점이 있으므로 중복게재로서 심각한 정도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는 경우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기만하는 경우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판결문을 읽으며 한숨이 푹 터졌다. 결론에도 동의할 수 없지만, 그보다도 왜 이런 형용모순 표현이 법률용어로 도입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아도 살벌한 사회에서 이 용어가 앞으로 얼마나 불량한 용처에서 악의적으로 남용이 될지 가슴이 답답하였다는 뜻이다. (자백하자면, 이 잡문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의 논문초고를 '표절'한 것이다. ALAI 판례연구회에서 정진근 교수의 발제를 듣고서, 오쿠다히데오의 ≪공중그네≫를 도서관에서 빌리고, 대법원 판결문을 출력하고, 박성호 교수의 논문을 확인하였으니 딱 떨어지는 표절 칼럼이다.)

새로운 시도

이홍구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1976~1978년 MBC <수사반장>으로 데뷔
1981~1982년 MBC 어린이연속극 <호랑이 선생님>
1982년 MBC 수목드라마 <숙희>
1982년 MBC 일일연속극 <시장사람들>
1986~1991년 MBC <한지붕 세가족>
1994년 MBC <M>
2007년 MBC 저녁일일연속극 <나쁜여자 착한여자>
1990년 영화 <물 위를 걷는 여자>

획기적인 시도의 연속

작가 지망생에서 일약 수사반장 작가가 되었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딴 것이었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무엇인들 못 할까 싶었다.

시경 강력계에 최중락 경감님과 함께 살인현장도 가고, 남대문시장 지하식당에서 현역 도둑들(경찰 정보원과 절도를 겸업하는)을 인터뷰하는 현장체험도 했다. 그 무렵 TBC(동양방송)에서 완전 컬러로 제작된 일본 형사물 시사회에 MBC 작가와 PD를 초대해서 처음으로 컬러로 된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그 느낌은 정말 압도적이었다. 문둥병 아버지가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고개를 넘는데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던 눈이 오버랩 되어 벚꽃으로 바뀌는 장면은 너무 황홀하여 오줌을 지릴 정도였다. 그날 처음으로 브라운관을 통해 총천연색 화면을 보면서 앞으로의 세상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게 변해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계 각국의 많은 영화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고, 그러다 보니 영화광이 되었는데, 지금도 나는 영화관 앞 좌석에 홀로 앉아 영화에 몰입되어 있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작년엔 개봉작 158편을 봤고, CGV 관객 상위 10% 안에 드는 SVIP이다.

그렇게 세계의 첨단 영화들의 영향을 받아 방송에서도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해왔다.

어린이 연속극이었지만 우리나라 드라마 최초로 SF를 도입하여 어린이들에게 우주와 4차원 세계의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 당시 일일극으로 방송한 <X-수색대> <우주탐험대>는 초등학생이었던 손창민과 신민경이 주인공으로 출연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도대체 세트에서 우주선을 어떻게 표현하냐"는 미술감독 항의에 외국서점을 모조리 뒤져 우주선이 나오는 미국 잡지를 구해다준 일화도 있다.

<호랑이 선생님>도 처음으로 '학교 현장을 무대'로 만든 실험적인 어린이 드라마였다. 그 당시 나는 1년에 두 번 봄, 가을 개편 때마다 새로운 기획안을 드라마 제작부 김성희 부장에게 제출하였다. 어느 해였나? 나는 연속극과 차별화된 짧은 연속극과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단막극을 제안하였고, 내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에 8부작 미니시리즈와 한 시간 단막극 <베스트셀러극장>이 MBC에서 탄생했다. 그리고 내가 쓴 작품이 <베스트셀러극장>의 후신인 <베스트극장>의 첫 1, 2회로 방송되었다.

그 후에 일일 시추에이션 드라마 <시장사람들>도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획이었는데, 나는 김지일 PD와 함께 카메라를 들고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을 돌면서 모델이 될 시장을 물색하였고, 이문동 시장 일부분을 스튜디오 안에 하나의 통 세트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구름다리 아래 온갖 노점들과 나문희의 순대국집, 현석의 생선가게, 이미지의 양품점….

만물잡화점의 변희봉, 시장 상인회 회장에 이대근, 그들 서민들의 애환이 펼쳐지는 일일 시추에이션 드라마였는데, 3년 동안 단 한 씬도 야외촬영 없이 올 스튜디오 녹화로 제작했다. 하지만 구름다리 위로 행인이 다니고 그 아래로 소방차가 드나들 정도로 워낙 입체적인 세트여서, 도대체 서울 어디에 있는 시장이냐고 물어오는 시청자들도 많았다.

그리고 1994년 MBC에서 방송되었던 <M>은 드라마에 본격적인 CG를 도입했던 최초의 작품이다. 그러나 그 당시 방송사에 기술진은 심은하 눈동자에 녹색 인광이 나오는 작업 하나에도 며칠이 걸렸다. 낙태 수술 도중 수술 도구로 갈가리 찢긴 태아(M)의 분노 폭주로 의료기구가 허공으로 날아다니는 장면은 스태프들이 낚싯줄에 수술 도구를 매달아 휘두르며 촬영했는데 CG 기술이 너무 조잡하여 낚싯줄이 생경하게 노출된 화면이 그대로 방송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송작가 교육원의 모태

1988년 7월 방송작가 교육원이 개원했는데, 그 이전엔 작가 지망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없었다. 작가 교육원의 모태는 1985년경에 이철향 선생님, 나, 이환경 씨 그리고 KBS 제작국에 이 부장 넷이서 의기투합하여 만든 신인 작가 통신강의라고 생각한다. 전국 각지의 작가 지망생들이 습작 작품을 우편으로 보내오면 작품평과 진로 상담, 그리고 우수한 신인은 현역 PD들에게 연결해주는 작업까지, 돈 안 받고 완전 공짜로 해줬다.

그러던 어느 날 김수현 이사장님이 전화를 하셨다. 협회에서 작가 교육원을 만들고 싶은데 그 시스템을 작가협회에 양도하면 안 되겠냐는 제안이었다. 말이 그렇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테니 이제 너희들은 손 떼라"는 것이었다. 암튼 협회 차원에서 하겠다면 그게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철향 씨, 이환경 씨 등과 협의하여 우리의 통신강의는 문을 닫기로 결정하였다.

한국방송작가교육원이 개원할 무렵 일부 반발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그 당시 MBC, KBS는 <베스트셀러극장> <드라마 게임> <TV문학관> <형사25시> 같은 단막극이 많았는데 그런 시추에이션 드라마들은 거의 중견 남자작가들이 돌아가며 집필하는 형태였다. 그런데 협회에서 신인 작가를 양산하게 된다면 기존 작가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위기론이 나온 것이다. 실제로 교육원 출신의 작가들이 배출되면서 수많은 남자작가들이 직장(?)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 남자작가들 대부분은 방송국 작가실에서 집필하였는데(1970년 후반부터 1980년 중반까지는 정동 MBC 작가실이 성업하였고, 1990년대는 KBS 별관 작가실이 남자작가들로 붐볐다) 방송작가 교육원 출신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작가실로 출근하던 남자작가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우주탐험대>는 어린이 연속극이었지만 우리나라 드라마 최초로 SF를 도입하여 어린이들에게 우주와 4차원 세계의 문을 열어주었다.

작가실의 겜블러들

작가실 얘기가 나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남자작가들의 도박성(?)이다.

30년 전 MBC 작가실과 KBS 별관 작가실엔 상설도박장이 개설되었다. 정동 MBC 꼭대기 층 작가실의 대장은 누가 뭐래도 한운사 선생님이셨는데 그 당시 일일연속극을 많이 쓰셨던 한 선생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포커판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판을 시작해 놓고 당신은 창가 구석 자리에 가셔서 원고를 쓰셨다. 빨리 원고를 마감해야 포커판에 낄 수가 있으니까 손이 안 보이게 원고를 쓰셨다.

아마도 그 시절 우리 남자작가들은 원고 집필로 쌓이는 강박감과 스트레스, 탈고하였을 때 해방감 같은 걸 술이 아닌 노름으로 대신 하였던 것 같다.

암튼 현업 작가들 수입은 그 시절에도 타 직종에 비해 꽤 받는 편이어서 언제나 포커판에 돈은 넘쳐났고, 거기에서 나오는 꽁지로 작가실 경비와 미스 신(MBC 작가실 최장기 근무직원) 월급을 충당하고도 남았다(공소시효가 지났기에 망정이지 요즘 계산법으로 치면 완전 억대 도박판이었다).

내 기억으로 그 판의 가장 큰 위너는 오 모 선생이 아니었나 싶다. 오 선생님은 한창 끗발이 올라 돈이 두둑이 쌓일 때쯤 신기하게도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 오는데, 그 전화를 받으면 엄청 큰 사고가 생겼다며 급히 자리를 떴다. 핸드폰도 없던 때인데 어떻게 그런 연락망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린 오 선생님의 리스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가장 출혈이 많았던 작가는 역시 한운사 선생님이 아니셨나 싶다. 그 당시에도 이미 원로이셨으니 젊은 작가들 촉을 당해 낼 수 없으셨을 거다. 녹화를 하루 앞두고도 한 선생님은 원고를 끝내지 못한 날이 많으셨는데, 궁여지책으로 제작국에서 조연출을 작가실에 특파해서 다른 일(?)에 한눈팔지 못하시도록 감시를 시켰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화장실에 가신다고 슬리퍼를 신고 나가셔서 몇 시간씩 행방불명이 되셨다. 발을 동동 구르는 조연출을 보다 못해 내가 수색을 나가면 한 선생님은 영락없이 옆 건물 문화관광 호텔 지하에서 상기된 얼굴로 파친코 핸들을 당기고 계셨다. "선생님 이제 그만 올라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면 시계를 보시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하셨다.

한 선생님 말고도 만날 코피가 터지는 사람은 윤 모 형님과 나 이홍구였다. 잠실 시민아파트에 살았던 그 형님은 올인 되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면서 입버릇처럼 같은 말을 했다. "내가 콱 한강 물에 빠져 죽어야지!"

<뽀뽀뽀>를 쓰던 조 모 작가는 절대 포커판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구내식당에서 밥을 사면서 내게 말했다. "홍구 씨, 우리 고향 천안에 땅 한 평이 3천 원이야. 한 달 포커비로 거기 땅 좀 사둬!" 그때 조 작가 말을 들었다면 아마 강남에 빌딩을 세웠을 거다.

아니, 그 빌딩 팔아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로 떠났을지도 모른다.

그 시절 MBC 작가실과 KBS 작가실을 늘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작가들… 그 쟁쟁했던 겜블러들은 이제 천국으로 떠나고 없다.

"혹시 그곳에도 방송국이 있어 포커판을 벌이고 계시려나?"

물고기가 중요한 건 아니었다

채널A <도시어부>

장시원



채널A PD
채널A <먹거리X파일>
채널A <두근두근 감동카메라 - 미사고>
채널A <어메이징 스토리>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행복(happ‘y’ness)을 찾아서

우연히 낚시 채널을 보다가,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한 적이 있었다. 평소 낚시에 관심도 없었고, 평생 낚시를 해본 적도 없었는데, 희한하게 그 날은 그랬다.

한 아저씨가 저수지 끝에 앉아 찌를 보는 정적인 그림의 연속. 반복되는 오디오. 나오지 않는 물고기. ‘이거 어쩌자는 거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저씨는 고기를 잡지 못했다. 급한 성격 탓에 채널을 돌리고 싶었지만 딱 한 마리 잡을 때까지만 보겠다는 마음이 생겨 참았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한참.

오랜 기다림의 끝에 마침내 아저씨가 겨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다. 그리곤 잡은 물고기를 카메라에 들이밀며 활짝 웃으셨다. 내 생각보다 너무 밝게 웃으셨다.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중년의 아저씨. 행복해 보였다.

‘대체 뭐가 저리 좋을까? 고작 물고기 한 마리에 사람이 저렇게 좋아하나?’

나는 모르는 행복이 아저씨의 얼굴에는 가득했다.

궁금했다. 저 행복의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렇게 <도시어부>를 시작했다.

세 명의 어부

기획 단계에서부터 난관은 산적했다. 입질이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낚시를 ‘메인’으로 예능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 문제였다. 기획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린 프로그램.

외부에서 오는 질문도 많았지만 스스로 물어보는 질문에도 명확히 답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냥 재미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감만 있을 뿐…. 돌이켜보면 모두가 예상하는 패배에 순순히 따라가기 싫었던 오기가 더 컸을지도 모른다.



기획 단계부터 난관은 많았지만 우리들은 한배를 탔고 함께 모험을 감행했다.
사진 출처 : 필자 제공





60대 배우와 50대 개그맨, 20대 가수의 공통점은 낚시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 단 하나였다.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면서 느끼는 공감대는 수십 년 나이 차를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했다.
사진 출처 : 필자 제공

결국 답은 사람에게서 찾아보기로 했다. 캐스팅을 시작했다. 처음부터 이덕화 선생님과 이경규 선배만을 생각했다. 덕화 선생님은 만난 첫날, 대뜸 같이 낚시가자고 하셨다. 아주 큰 붕어를 보여주겠노라고. 9일간 같이 있었지만 결국 보지 못했다. 물고기는 못 잡았지만, 그 9일이 지겹지가 않았다. 낚시터에 처음 온 PD가 물고기를 못 잡아서 지겨워할까 봐 끊임없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시는 선생님의 마음이 고마웠다. 고기는 못 잡아도 함께하는 게 즐거웠다.

경규 선배를 만난 곳 역시 조그만 낚시터였다. 만나자마자 "이건 무조건 된다"고 했다.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된다고 했다. 낚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큰데 생각마저 안 된다고 하면 되겠냐고…. "그냥 된다고 믿자"라며 소주를 들이켜셨다. 같이 들이켰다.

마이크로닷을 만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 경규 선배의 뉴질랜드에서 온 전화를 받고 난 후였다. 내용인즉, <정글의 법칙> 촬영을 하러 뉴질랜드에 왔는데 낚시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었다.

마이크로닷은 엉뚱했다. 대뜸 "출연료를 안 줘도 좋으니까 낚시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갑자기 처음 본 자리에서 해외에 있는 아버지랑 통화연결을 해줬다. 속으로 '뭐 하는 짓이지' 했는데 아버지로부터 "우리 재호(마이크로닷의 본명) 잘 부탁드린다"고 듣는 순간 이상하게 책임감이 느껴졌다. 자식 먼 데 보내놓고 걱정하는 부모님 마음이 전해졌다. 멤버 후보 리스트에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1차 미팅 며칠 뒤 마이크로닷으로 결정했다. 낚시에 대한 애정과 순수한 에너지가 좋았다.

이렇게 모인 세 어부의 소위 '케미'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덕화 선생님은 프로그램이 너무 가벼워지지 않게 무게를 잡아주고 동생들의 잘난 짓 못난 짓을 다 감싸 안아줬다. 그런 큰 형님 아래에서 막내인 마이크로닷은 부담 없이 젊은이로서 느끼는 모든 것을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경규 선배는 본연의 재능을 자유롭게 보여주며 예능적 재미를 배가시켰다.

60대 배우와 50대 개그맨 그리고 20대 가수. 이 정체 불분명한 조합은 첫 촬영부터 마치 대본이 있는 것처럼 각자의 역할과 캐릭터를 가지고 하나의 식구로 뭉쳐져 갔다. 이유는 낚시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 단 하나였다.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면서 느끼는 공감대는 수십 년 나이 차를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했다. 거친 바다를 헤매며, '물고기를 잡는 일'이라는 엄청난 난제와 부딪쳐서, 하나의 팀 또는 가족으로 성장해나가는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스토리는 매주 나에게 흥미롭게 다가왔다. 어쩌면 이 세 명의 어부가 좋아하는 것이 농사였다면, 그 이야기 역시 <도시농부>로 제법 재밌지 않았을까? 뻔한 얘기지만 결국 사람에게 답이 있었다.

낚시 뒤에 남는 것이 물고기가 아님을 우리는 평생 알지 못한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첫 촬영(전설의 왕포). 실제 마주친 낚시의 민낯은 끔찍했다. 7월 말 뜨거운 땡볕에 10시간 동안 망망대해를 떠돌았지만 결과는 냉정했다. 200마리를 잡기 위해 떠났지만 5마리도 채 못 잡고 돌아왔다.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상상 속의 일 같았다. 넘쳐나는 물고기에 환호하는 출연자의 모습을 담고 싶었던 내 머릿속 시나리오에 쓴웃음이 났다.

쓴웃음을 숨기며 나갔던 두 번째 촬영. 이번에는 예보에도 없던 폭우와 거친 풍랑을 만났다. 쫄딱 젖은 출연진과 스태프. 망가진 카메라. 미동도 없는 초릿대(낚싯대의 끝).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폭우를 맞으며 멍하니 바다를 쳐다보는데 기가 찼다. 하늘을 향해 한바탕 욕을 하고 싶었지만 비가 더 올까봐 하지 못했다.

그래도 포기는 없었다. 비바람을 피해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10시간 동안 망망대해를 헤맸다. 그리고 잡은 물고기는 달랑 한 마리.

육지로 돌아가는 그 배에서 쓴웃음을 넘어 헛웃음이 났다. 나만 웃은 건 아니었다.

출연진 제작진 할 것 없이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나오는 건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었다.

'40~50명의 인원이 이 비바람을 맞아가며 10시간 망망대해를 헤매다 물고기 달랑 한 마리 잡고 돌아가는 이 웃픈 상황을 누가 믿겠는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미있기 시작했다. 비바람을 맞고 물고기를 못 잡아도 그냥 주어지는 현실이 기가 차서 웃음이 터지기 시작했다. 진한 페이소스 뒤에 따라오는 웃음들이 있었다. '대자연을 상대로 물고기 한 마리 잡아보겠다고 덤벼드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제일 웃긴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PD로서 많은 시나리오들을 머릿속에 담고 배를 타고 나가지만 바다는 여지없이 깨뜨려 버렸다. '알 수 없다'는 것은 두려웠지만 설레게도 만들었다. 내 머릿속 조잡한 시나리오보다 훨씬 재미있는 스토리가 그 바다에 있었다. 모르니까 설렜고, 설레니까 최선을 다해 기다렸다. 왜 낚시가 기다림의 미학이라 불리는지 조금은 알 것만 같았다.

'물고기 한 마리, 그거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자조적인 질문은 스스로도 매일 던진다.

정작 바다에 나가면 그 한 마리의 물고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출연진과 그들을 응원하는 제작진이 그 답을 하고 있다.

긴 기다림의 끝에 누구든 고기를 잡으면 달려가 부둥켜안고 소리치게 치게 된다. 기다림이 깊을수록 포옹은 더 진해지고 소리는 더 커져갔다. 이미 우리들은 한배를 타고 있었다. 그때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거 혹시 될지도 모르겠다.'

미래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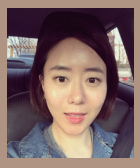
<도시어부>는 시즌제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12회 정도를 예상했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 54회까지 촬영했다. 기획부터 거의 2년의 시간을 <도시어부>와 함께했다. 마이크로닷의 고향인 뉴질랜드도 갔었고, 경규 선배의 꿈인 알래스카도 다녀왔다. 모험은 떠나기가 쉽지 않지만, 떠나면 돌아오기도 쉽지 않았다. 솔직히 '참' 무작정 떠났던 이 모험의 끝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끝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잡지 못한 물고기가 너무 많다. 그리고 젊다.

하지만 모든 것에 시작과 끝이 있듯이 <도시어부>도 여느 예능 프로그램과 다름없이 이젠 새롭지 않고 지루하다는 얘기와 함께 저물어갈 것을 안다. 하지만 저물어가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에겐 생활의 일부로 <도시어부>가 존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목요일에 <도시어부>가 있어서 수요일부터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프로그램 말이다. 이왕 떠난 모험의 끝에 대물이 있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예상한 패배 앞에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던 <도시어부>팀에 고맙다.

진실된 먹방의 세계로 떠나다

OLIVE <원나잇 푸드트립>



한서은

MBC <쇼!음악중심> <놀러와> <나는 가수다> <세바퀴>
Mnet <더 마스터>
OLIVE <원나잇 푸드트립>

“가면 뭐 먹을 거야?”

여행을 계획하는 지인에게 묻게 되는 질문이다.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이토록 맛집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맛을 추천해 주고 싶어서다.

누구랑 가는지, 어딜 가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먹느냐가 되어 버린 지금. 이 근거 없는 맛부심과 오지랖을 장착하게 된 건 일명 먹고 죽자고 떠나는 여행 <원나잇 푸드트립> 때문이다.

여행의 시작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었다

<원나잇 푸드트립>의 합류 제안을 받고 처음 든 생각은 ‘내가 맛있는 여행을 즐기는 사람인가?’였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건 자신 있다. 하지만 여행은 그다지 즐기지 않는 편인데, 그런 내가 여행 프로그램이라…. 잠시 고민하는 사이, 연출을 맡은 정종선 PD는 꽤나 매력적인 제안을 해왔다.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일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나 역시 일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부분 아닌가! 만드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그래! 한 번 가 보자!! 그 자리에서 도장을 쾅쾅! 찍은 후, 함께할 작가진을 수소문했다. 완성된 작가진은 하나같이 먹는 걸 좋아하는 인물들이었고, 다이어트를 외치지만 회식 때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대식가들이었다. 여기에 대부분이 <원나잇 푸드트립> 애청자였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 훌륭한 작가진을 만난 건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행운이다.

진실된 먹방을 위한 참된 먹꾼 찾기

순탄했던 준비과정에 비해, 프로그램의 시작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출연진을 섭외하는 것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초반의 <원나잇 푸드트립>은 기수마다 다른 콘셉트가 존재했는데, 이에 맞춰 매번 새로운 먹방 인물, 소위 먹꾼을 발굴해내야 했다. 그 와중에도 변치 않는 섭외 기준이 있었으니, 외국의 음식을 기꺼이 반기는 분! 기왕이면 먹음직스럽게 드실 줄 아는 분! 너무 쉬운 기준 아니냐고? 막상 해보면 이 역시 까다롭기 그지없다. 당대 최고의 한류 스타라 해도, 심지어 그가 이 프로그램에 호감을 보낸다 해도, 먹거리에 대한 흥미와 집착(?)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인연이 아닌 거다. 먹방의 진정성은 ‘진짜 좋아서 먹는가’에 달려 있다. 특히나 <원나잇 푸드트립>의 시청자들은 인물의 유명세보다는 진실된 먹방에 환호한다. 반대로 출연자의 불성실한 먹방(?)에는 무자비한 시청률 그래프로 응답한다. 고로 잘 먹는 스타를 발굴하는데 집착할 수밖에.

우리는 출연진을 선정하기에 앞서, 수많은 먹방 관련 인터뷰와 동영상은 물론이고, 개인계정까지 열심히 드나들며 먹방 라인을 구축했다. 지금도 감사한 것은 이 먹방 라인 속 많은 스타들이 프로그램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꼭 한번 가고 싶었다’ ‘왜 이제 전화했냐~’는 말을 들을 때면,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다.

다사다난했던 먹방 여행기

출연이 확정되면, 출연자 개별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입맛과 취향, 식사량을 파악한다. 여기에 여행을 원하는 나라와 음식, 맛집 리스트와 그 집을 가고자 하는 이유까지 꼼꼼히 알아낸다. 현재의 콘셉트는 여행지 최고의 맛집 찾기로 바뀌었지만, 사전 준비과정은 동일하다. 무엇보다 출연자의 먹킷리스트와 먹컨디션이 가장 중요한 것!

이후에 주력하는 건 촬영 허가를 받아내는 일이다. 국내에서는 먹방 프로그램에 호의적인 편이지만, 해외 사정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1인 먹방일 경우에는 소수의 인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즉석 섭외나 촬영은 물론 자유로운 이동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의 콘셉트처럼 단체로 움직일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이 촬영이 해당 가게에 폐가 되어서는 안 되기에, 사전에 정중하게 양해와 협조를 구한다.

결과는 복불복!! 까다로울 것만 같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흔쾌히 촬영을 수락할 때도 있고, 대중적인 맛집에서 단호하게 노!를 외칠 때도 있다. 정말이지 100% 사장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 답사에 모든 걸 건다. 답사팀이 현지에서 보내오는 실시간 상황은 본 촬영보다 다이내믹하다. 이메일과 전화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던 맛집 주인이 제작진과 얼굴을 마주하자 긍정적으로 마음을 돌릴 때면, 환호의 이모티콘이 폭발한다. 반대로 '새로운 집을 알아봅시다'라는 글이 뜨면, 소름+우울+눈물의 이모티콘이 흘러내린다. 이게 끝이 아니다. 먹방 외에도 출연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스팟까지 체크하느라 답사팀은 발에 불나도록 돌아다녀야 한다. 이렇게 정성을 다한 우리만의 먹지도가 완성되었을 때의 희열은 말해 무엇하랴!

먹으면서 더욱 끈끈해진 먹방 프로들

시즌 1, 2가 개인의 먹방 콘텐츠에 집중했다면 시즌 3는 다양한 시도를 했다. 소소하고 담백한 먹방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더욱 진실되고 풍부하게 맛을 전달하고자 단체 먹방으로 선회했다. 그만큼 시행착오도 많았고, 험난한 일정에 숨이 가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출연진들을 만난 덕분에 촬영장 분위기는 그 어느 곳보다 화기애애했다.

흔히 먹방은 거저먹는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이 영역에도 분명 프로는 존재한다. 제작진과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 맛을 즐기는 과정에서 출연자들 역시 엄중한 사명감을 안고 촬영에 임한다.

"나 너무 많이 먹었나봐…. 다음 집에서는 살살 먹을래." 카메라가 꺼지면 부른 배를 만지며 하소연을 하던 그들은 다음 맛집에 도착하는 순간 제로 세팅이 된다. "컨디션 보고 조절해서 드세요~"라고 걱정의 말을 하는 내게 한 출연자는 이런 말을 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맛있어서 자꾸 먹게 돼. 이 맛을 사람들이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앞 문장은 개인적인 것이었지만, 뒷 문장은 느낌이 달랐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청자를 대표해서 먹고 있다'는 책임감이 들어 있던 것이었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우리는 더욱더 출연진의 컨디션에 집중했다. (그렇다고 그들의 먹성을 말릴 수는 없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뒤풀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는 온통 먹는 것뿐이었다.

아들로부터 "아빠, 동생 가졌어요?"라는 말을 들었다며 볼록 나온 배를 만지던 식신 정준하, 순식간에 4kg이 쪘다면서도 또 먹는 대식가 박보람, 그 집 참 맛있었다며 또 한 번 입맛을 다시는 고기 킬러 돈스파이크…. 이 귀여운 먹신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한 출연자는 "<원나잇 푸드트립>은 힐링"이라는 말을 했다. 촬영을 마치고 털어놓는 뻔한 감상 아닐까 싶은 찰나,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여행을 하며, 좋아하는 음식을 맛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생에 힘이 된다고….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이 마음은 보는 이에게도 가닿으리라….

언제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어보겠냐며, 시청자들에게 이 맛을 잘 전하고 싶다며, 한 입 한 입, 그 맛을 진지하게 표현해주었던 우리의 먹꾼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언제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어보겠냐며, 시청자들에게 이 맛을 잘 전하고 싶다며, 한 입 한 입, 그 맛을 진지하게 표현해주었던 우리의 먹꾼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진 출처 : 필자 제공

인생을 맛있게 살찌울 준비 되셨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즐기는 시청자들은 여행에 대한 로망이 분명하다. '나도 가서 저 음식을 먹어야지~' 하면서 지루한 일상에 작은 희망을 품는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친절해지고 싶었고, 그 마음은 '강력 추천하는 먹킷리스트'로 프로그램에 녹아들었다.

여행은 누구에게나 특별하고 소중하다. 여기에 맛좋은 음식이 더해진다면, 그 여행은 꽤나 향기롭게 기억될 것이다. 먹는 것은 단순히 입안에 넣고 씹고 삼키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과정을 함께하는 이들과는 공감대가 생기고, 낯선 문화에 대한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열린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나 역시도 <원나잇 푸드트립>을 통해 미식 여행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이다.

아직도 여행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가까운 나라로 원나잇 푸드트립을 떠나보길 권한다. 거창한 계획이나 두둑한 지갑까지도 필요 없다. 가뿐하게 훌쩍 떠나, 원푸트에서 추천한 오래된 로컬 맛집에 앉은 후, 따끈한 음식을 한 입 베어 문다. 그 순간, "아! 잘왔다!"는 말이 절로 나올 것이다.

이 맛있는 한 씬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해외의 숨은 맛을 캐낸다. 모두의 인생이 포동포동 살찌길 바라며 '맛있게 먹고, 재밌게 살자! <원나잇 푸드트립>처럼!'

웹툰 전성시대!
드라마 제작 시 유의할 저작물 이용허락 절차

바야흐로 웹툰의 전성시대이다. 네이버에 연재된 웹툰 <신과 함께>가 영화로 제작돼 1편과 2편 모두 관객 1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웹툰 바탕의 영화나 드라마 제작이 한층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이제 어느 채널을 돌려도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생> <동네변호사 조들호> <부암동 복수자들> <고백부부> <김비서가 왜 그럴까>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등등. 웹툰 원작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이미 독자를 통해 재미가 검증된 콘텐츠이므로 드라마화 될 경우 대중성과 인기를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웹툰은 보통 만화가가 스토리를 구상하고 직접 그려 연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별도의 작가진이 스토리를 구상하면 만화가가 이를 바탕으로 만화를 그리는 방식의 창작 시스템이 늘고 있다.

웹툰의 스토리 작가로 참여하는 회원 작가도 늘고 있고, 이제는 역으로 웹툰이나 웹소설로 먼저 발표를 한 후 독자들의 반응을 살펴 드라마 제작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도 많다.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누구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까?

만화 저작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법원은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에서 만화 스토리 작가들이 독자적으로 창작하여 시나리오나 콘티를 만화가에게 제공하였고, 만화가는 이를 바탕으로 만화를 완성한 경우, 만화가가 출판사와 독자적으로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스토리 작가들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스토리 작가와 만화가가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함으로써 주제, 스토리와 그 연결방법, 그림 등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완성되어 각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행사에 있어 만화가가 스토리 작가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반대로 스토리 작가가 만화가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스토리를 작성한 경우, 작성된 만화는 공동저작물보다는 원작(스토리)에 대한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만화의 표현, 배경설정 등은 배제하고 오직 스토리 원작에만 기초하여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토리 작가에게만 이용허락을 받으면 된다.

時代共感

원종우의 깐깐한 과학 이야기

원종우 과학과 사람들 대표
별의 세상과 티끌의 세상은 많이 다르다. 다만 근본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다. 삼라만상을 이루는 모든 것이 실은 복잡한 구조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거리와 크기는 같은 것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정병욱의 음악의 언어

정병욱 대중음악 평론가·문화콘텐츠 기획자
<Damn Rules>의 메시지는 꽤나 의미심장하다. 예서의 음악 자체가 전에 흔치 않은 매력으로 가득하고, 본 앨범이 기존 예서의 음악과 또 다른 면모들을 선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

이건범의 우리말 밑바닥

이건범 작가, 한글문화연대 대표
사인에는 두 가지 의미 요소가 있다. 하나는 '나만의 독특한 표식', 다른 하나는 '손으로 직접 쓰는 행위'의 뜻. 그런데 서명은 뒤엣것을, 수결은 앞엣것을 가리키는 편이다.

時代共感
원종우의 깐깐한 과학 이야기



압도적이고 놀라운
크기의 세계

원종우 과학과 사람들 대표
성공회대 교양학부 외래교수
경희대 철학과 / 런던 칼리지 오브 뮤직 앤 미디어
2008년 SBS 창사특집 에너지 다큐멘터리 <코난의 시대> 작가 (휴스턴 영화제 대상)
과학 팟캐스트 <과학하고 앉아있네> 진행 및 운영
저서 ≪조금은 삐딱한 세계사≫ ≪태양계 연대기≫ ≪파토의 호모 사이언티피쿠스≫
공저 ≪과학하고 앉아있네 1,2,3,4,5,6,7,8,9≫ ≪호모 사피엔스씨의 위험한 고민≫ ≪정치가의 연애≫
≪희망을 통찰하다≫ 등

세상은 어떻게 나뉠까? 대륙이나 국경 같은 지리, 정치적 요인들, 인종이나 피부색 등의 생물학적 차이, 또 언어와 종교 등의 사회적 구별이 떠오른다. 눈에 쉽게 띄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는 것들이다. 하지만 자연이 규정한 더 근원적인 간극들도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크기다. 우리의 감각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크기 영역은 작게는 소금 알갱이에서 크게는 멀리 보이는 산 정도일 뿐이기 때문이다. 과학이 발전하기 전까지, 불과 수백 년 전까지도 인류는 그 바깥 영역은 존재조차 인식할 수 없었다.

이런 직관적 감각 영역을 넘어서는 거대한 것의 대명사가 바로 별을 위시한 천체다. 우리가 사는 지구도 꽤 넓어서 인류가 대양을 건너 다른 대륙을 쉽게 오갈 수 있게 되는데 수십만 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렇다면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은 대체 얼마나 클까. 목성의 반지름은 지구의 10배가 조금 넘고, 반지름이 10배면 표면적은 10의 제곱으로 100배 단위로 커진다. 흔히 하는 말처럼 지구에 오대양 육대주가 있다면, 이를 그대로 대입하면 목성의 표면에는 지구의 것 같은 크기의 대양 500개와 대륙 600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살았다면 아직도 수많은 바다와 육지에 발 한번 디디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큰 목성도 우주 속에서 크기로 자랑할 입장은 못 된다. 태양의 반지름은 근 70만km에 달해서 지구의 100배고 부피는 100의 세제곱으로 100만 배다. 이렇게 거대하다 보니, 태양계에는 사실 태양만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양계 총 질량의 99.86%가 태양이고 8개의 행성과 위성 등 나머지는 다 합쳐도 0.14%의 부스러기일 뿐이니 말이다.
이런 태양도 사실은 우리 동네의 골목대장에 불과하다. 태양과 지구가 속한 은하의 직경은 약 10만 광년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을 말 그대로 먼지로 전락시켜 버릴 정도로 크다. 이런 각각의 은하들은 중력으로 서로 모여서 은하단을 구성하는데 수백에서 수천 개의 은하들이 군집한 그 직경은 물경 수천만 광년에 달한다. 1광년이 약 10조km니 수천만 광년이라는 크기는 우리의 상상력 밖에 있다. 이런 큰 규모의 세상에서 우리가 익숙한 크기의 것들이 존재감을 드러낼 자리 따위는 전혀 없다. 인간은 이렇듯 초라한 존재다.

그러나 반대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는 머리카락의 지름 정도, 약 0.1mm 정도다. 이보다 작은 것을 보려면 렌즈를 사용한 장치가 필요하다. 17세기경 현미경이 만들어지자 비로소 그 렌즈 아래 적혈구나 백혈구, 대장균, 미세먼지 같은 작고 놀라운 세계가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주 작은 것들도 단일한 점이 아니라 복잡한 구조라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 하지만 렌즈를 사용하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20세기 들어 전자파를 사용하는 전자현미경을 만들자 이제 10억 분의 1m인 나노미터 수준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이쯤 되면 너무나도 작은 세계지만, 여전히 세상의 바닥과는 꽤나 거리가 있다.

저 아래에는 이제 원자의 세계가 펼쳐진다. 원자의 개념을 처음 발상했던 옛 과학자들은 이것을 물질이 더 이상 나뉘지 않는 최소의 단위일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이 단일한 물체가 아니라 플러스 전하를 갖는 원자핵 주변을 마이너스 전하의 전자가 돌고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고 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지름은 1m의 1천조 분의 1이다. 이 원자핵 주변에 존재하며 원자의 시스템을 완성하는 전자의 크기는 1m의 100경 분의 1이다. 작은 세상도 큰 세상만큼 깊고 넓은 것이다. 인간은 이렇듯 거대한 존재다.

물론 별의 세상과 티끌의 세상은 많이 다르다. 다만 근본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다. 삼라만상을 이루는 모든 것이 실은 복잡한 구조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거리와 크기는 같은 것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리고 별과 별, 은하와 은하, 은하단과 은하단 사이에 별, 은하, 은하단 자체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빈 공간이 존재하듯이 원자 아래의 세상에도 대부분의 영역을 빈 공간이 차지한다. 그래서 우주 속 대부분의 지역은 물질이 아닌 허공이,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채우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는 헤로도토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세계는 원자와 허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었다. 하지만 물질은 그냥 단단한 덩어리가 아니며 허공도 그저 허무한 빈 공간이 아니다. 둘은 장엄하고 신비로운 자연법칙 안에서 얽혀 조화를 이루며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이 물질과 허공의 춤 속에서 우리 인간은 한편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티끌이며, 동시에 우주 전체만큼이나 크고 복잡한 존재다.

時代共感
정병욱의 음악의 언어



예서 <Damn Rules>, 모두에 대한,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정병욱 대중음악 평론가·문화콘텐츠 기획자
한국외국어대 문화콘텐츠학 석사 졸업,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 <음악취향Y> 필진, <인디포스트> 객원작가,
前 <아주경제> 객원논설위원, 前 네이버 파워블로그 수상, 공저 ≪신해철 다시 읽기≫

So please would you walk away / I mean it / You do your way / I'll do on my way
— YESEO 'I Don't Give A' 중에서

지난 7월 14일, 아직 올여름 불볕더위의 위력을 채 실감하지 못했을 시기, 예서의 정규앨범 발매 소식이 들려왔다. 2018 한국대중음악상에서 비록 수상은 못 했지만 3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미국 음악 매체 <Nosiey>에서 한국 뮤지션의 "새로운 물결(new wave)"로 소개하였으며,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에게 파트너로 러브콜을 받는 등 2017년 최고 신인 중 한 명으로 꼽혔던 그이다.

예서라는 이름으로 작업물을 공개한 것은 2016년 전후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서였다. 본격적인 데뷔 후에는 앞서 언급한 여러 업적을 데뷔 1년여 만에 변변한 소속사 하나 없이 혼자 힘으로 이루어냈다. 정규앨범 전까지 2장의 EP, 5장의 싱글을 발표하면서 늘 혼자서 작사, 작곡, 편곡, 노래까지 다 해내며 다재다능한 능력과 매서운 작업량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했다. 게다가 그렇게 평단과 언론, 인디 팬들에게 사랑받은 것은 물론 올해 3월에는 'SM Station' 컬래버레이션에 합류하며 보다 더 큰 무대로의 진출 내지는 메이저 소속사의 영입을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예상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잃을 것 하나 없는 초짜 신인도 아닌, 주목과 관심을 한창 받고 있는 유망주 최대어의 정규앨범 첫 메시지는 다름 아닌 "Damn Rules"이었다.

어떠한 영역이든 법이나 규칙은 사회적 합의이자 약속 의무사항이다. 평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공식적인 법과 비공식적 규칙들 중에 언어가 가장 대표적이며, 음악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합의이다. 언어를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은 한정적으로 개성 있는 표현이 될 수 있을 수는 몰라도 절대적 다수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그것은 결코 언어가 될 수 없다. 언어의 규칙이 실제 언어 구사와 발화로부터 발생한 후천적 룰임을 상기할 때, 거꾸로 문법이 다시 언어를 통제수단이 되는 현실은 아이러니하다.

음악의 이론이나 규칙도 큰 맥락은 다르지 않다. 태초에는 당연히 음악 규칙이 아닌 음악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샌가 해당 사회나 문화권에 허용하는 전통적 기준이나 법칙이 생겨나고, 이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오늘날에는 대중의 취향이나 관련 종사자들의 미감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다. 기존의 규칙을 거스르는 방법론이 곧 예술의 진보이자 새로운 사조의 등장을 의미했던 예술사 특수한 정치 상황을 벗어나, 마치 보편적으로 잘 된 통·번역처럼 완성도 높은 소통의 지점만을 고민하는 가운데, 간간이 솟아나는 뜻밖의 변곡점만을 멀찌감치 기다리는 게 보통이다. 21세기 이래로는 테크놀로지 발전에 의한 샘플링 작법에 대한 논의나, 디지털 가상 악기, 최근의 인공지능에 의한 작곡과 연주 등이 이슈를 점화했을 뿐 갈수록 새로운 음악에 대한 회의는 깊어져만 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 아래 <Damn Rules>의 메시지는 꽤나 의미심장하다. 예서의 본 앨범이 음악사 대단한 혁신을 품고 있거나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신에 예서의 음악 자체가 전에 흔치 않은 매력으로 가득하고, 본 앨범이 기존 예서의 음악과 또 다른 면모들을 선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 예서가 창조하는 사운드에는 차가운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기계적인 질감과 알앤비풍의 밀고 당기는 근기가 세련되게 공존하며, 그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는 동시에 지나치게 건조하고 깔끔한 덕에 스산함과 몽환적인 인상이 부대하기도 한다. 뚜렷한 멜로디와 기승전결이 분명한 서사는 그저 배경음악으로서가 아닌 온전한 감상을 위한 한 편의 음악으로서의 가치를 높여준다.
이번 앨범은 특히 근래 일렉트로닉 씬의 트렌드와도 같은 알앤비 색채를 과감히 지우고 딥하우스, 다운템포, 디스코 등 시대를 막론한 다양한 일렉트로닉 세부 장르를 강렬한 가사 및 더욱 힘을 실은 보컬과 결합했다. ‘Bitches Rules’에서는 Beth Givens(트립합 밴드 Portishead의 보컬)의 서늘한 긴장감이, ‘Honey, Don’t Kill My Vibe’은 Katie White(The Ting Tings의 보컬)의 당돌함이 묻어나며, ‘What Is A Yogic Flying’ 같은 트랙은 아예 IDM 장르의 혼란스러운 매력이 범벅되기도 한다.

뮤지션의 경력이나 앨범에 대한 흔한 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 앨범을 관통하는 예서의 주장과 태도이다. 어느 시대와 장르의 파편들을 인용하고 어떤 방법론을 차용하든 앨범 내 가장 통일성 있고 과감한 것으로 앨범 내 대부분의 트랙 제목과 가사들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 “Honey, don’t kill my vibe.”(‘Honey, Don’t Kill My Vibe’), “I’m a god of mine. … You can’t do it like me.”(‘Do It Like Me’), “I’ll do on my way. Just give my day.”(‘I Don’t Give A’). 곧 핵심은 대단한 외부의 혁명이나 단지 룰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준다는 룰을 부수고 반대로 그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역설이다. 물론 앨범에 녹여진 소신은 스스로 모든 작업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특정한 소속으로부터 자유로운 그의 현재 위치, 그리고 예서의 감정들이 중요한 기반이 된 것은 맞다. 허나 이는 저마다의 룰에 옥죄인 <Dame Rules>를 듣는 우리들 모두의 다짐이기도, 자기를 지켜내는 이들 모두에 대한 예서의 응원이 되기도 한다.

時代共感
이건범의 우리말 밑바닥



서명과 사인, 그리고 수결

이건범 작가, 한글문화연대 대표
서울시 국어바르게쓰기 위원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저서 ≪내 청춘의 감옥≫ ≪언어는 인권이다≫ 등 다수

어디에 서류를 낼 때마다 맨 마지막에 이름 적고 도장을 찍거나 이른바 '사인(sign)'을 한다. 은행에서 예금을 들 때도, 예금을 찾을 때도 신청서에 그렇게 한다. 서류 작성자가 본인임을 마지막으로 확인해주는 표식이다. 도장 찍는 걸 한자 말로 '날인'이라고 하니, 손으로 휘갈겨 이름을 적는다는 뜻의 영어 낱말 '사인'과 신기하게도 운율이 맞는다. 날인과 사인.

과거에는 문서 작성자 확인 표시로 대개 도장을 썼으나, 요즘에는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인'을 많이 쓰는 편이다. 은행에서도 통장에 도장 찍는 일보다 사인하는 일이 더 잦다. 도장 들고 다니는 걸 귀찮아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위조를 막는 데에 사인이 더 든든해서 그럴 것이다.

그런데 문서 서식을 보면 '사인'이라고 쓰여 있는 곳은 없다. 모두 '서명'이라고 적어 두거나 도장 찍으라고 (인) 표시를 해둔다. 여기서 '서명'이라는 말이 이름을 적으라는 뜻인지 사인하라는 뜻인지 헷갈린다. 은행 같은 곳에서 직원이 하라는 대로 하다 보면 "서명하세요"라고 들었을 때 또박또박 이름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이름의 상징 요소를 끄집어내 나름대로 휘갈겨서 나만의 독특한 표식처럼 만든 '사인'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이다. 특히, 은행에서는 "이름 쓰고 옆에 서명하세요"라고 하니까 더욱 헷갈린다.

예전엔 "서명 후 날인하세요"라고 하여 제 손으로 이름 쓰고 도장을 찍는 일이 많았다. 여기서 서명이란 이름을 적는 행위이고, 날인은 도장을 찍는 일이다. 그러니 이름 옆에 서명하라고 하면, 이것은 날인 대신에 사인하

라는 뜻으로 다가오는데, 서명은 이름을 적는다는 뜻이니 멈칫할 수밖에 없다. 요즘은 관공서 같은 곳에 내는 서식 용지에 직접 손으로 쓰기보다는 컴퓨터에서 서식의 내용을 채우고 자기 이름까지 타자한 다음에 인쇄하여 그 인쇄한 이름 옆에 서명을 하기 때문에 이름을 쓸지 사인을 할지 더욱 헷갈린다.

서명과 사인을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서명03 (署名)

1. 자기의 이름을 써넣음. 또는 써넣은 것.
2. <법률>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삼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 또는 그런 것.

사인14 (sign)

1.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음. 또는 그렇게 적은 문자. '서명[3]', '수결[1]'로 순화.

외국어 낱말인 사인을 서명으로 순화하였기에 대개의 서식에 ('서명')이라고 적어놓고 거기에 사인을 하게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사인은 누구나 알아보게 또박또박 쓰는 글씨보다는 남이 알아보기 어려워도 내 나름의 의미를 넣어 추상적으로 도안한 일종의 그림이라는 특징이 강하다. 단순히 이름을 글씨로 적는다는 의미만으로는 부족하다.

더구나 '서명'의 한자도 예상과 달리 서식書式, 서예書藝에 사용하는 '글 서書'가 아니라 '관청 서署'라는 점에서 이는 글씨를 쓴다는 뜻만으로 한정되지 않는 것 같다. 어떤 임무나 공식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름을 적는다는 뜻으로 이 말을 만들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과거에 중국에서는 책이나 문서에 이름을 쓰는 행위에 이 '관청 서'를 넣어 말했지만, 오늘날 '사인' 대신에 쓰는 말은 '치앤쯔(签字, 첨자, [qiānzì])'란다. 일본에서는 '서명'과 '사인'을 반반씩 쓴다고 하니, 우리는 일본을 따르는 셈이다.

역시 순화어인 수결을 찾아보니 뜻이 이렇다.

수결하다01 (手決--)

[동사] 예전에, 자기의 성명이나 직함 아래에 도장 대신에 자필로 글자를 직접 쓰다.

수결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볼 수 있던 서류 결재 절차이자 결재의 표식이다. 관청의 결재 문서에 상급자가 결재하면서 사용하였던 확인 표식을 '수결'이라고 했다. 다만 수결은 행위자의 이름을 추상화한 도안이 아니라 누구나 한자로 '일심一心'을 적는 것이었으므로 사람마다 개성이 뚜렷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듯하다. 그래도 이름을 또박또박 쓰는 것이 아니므로 오늘날의 '사인'과 매우 비슷한 측면이 있다.

사인에는 두 가지 의미 요소가 있다. 하나는 '나만의 독특한 표식', 다른 하나는 '손으로 직접 쓰는 행위'의 뜻. 그런데 서명은 뒤엣것을, 수결은 앞엣것을 가리키는 편이다. 그런 점에서는 '서명'보다 '수결'이 '사인'의 순화어로 적절하고, 조금 더 혼동을 줄여줄 것 같다.

손으로 또박또박 이름을 써도 되고, 나름의 휘갈긴 이름 모양을 그려 넣어도 효력은 같다. 그렇지만 인쇄 글꼴처럼 단조롭게 이름을 쓰기보다는, 그래도 나만의 독특한 휘갈김이 하나의 손도장처럼 쓰이는 그 맛을 굳이 포기할 까닭은 없다. 물론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에서 "서명하세요" 또는 "사인하세요" 하던 말을 어느 날 "수결하세요"로 바꾸기란 무지막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온 국민의 자잘한 헷갈림이 말 하나 바꿔서 풀어질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니겠는가?

TV 모델, 거꾸로 뒤집기

‘바크로프트 미디어(Barcroft Media)’의 성공

U K

김수정

≪나는 런던에서 사람 책을 읽는다≫ 작가
현재 런던에 거주하며, 다양한 글쓰기와 방송 일을 하고 있다.



영국 방송 제작의 선두에 선 바크로프트

TV 방송이 위기라고들 한다. 시청률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건 이미 오래전 일. 지난 몇 세기 동안 탄탄하게 지켜온 TV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영향력 역시 수직 하락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대중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TV를 외면하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방송인들은 혼란스럽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어떤 콘텐츠와 어떤 콘셉트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영국의 방송인들 사이에서 대안으로 불리는 제작사가 있다. 바로 독립 제작사인 바크로프트 미디어(Barcroft Media)이다. 이 회사는 2003년 사장인 샘 바크로프트(Sam Barcroft)의 런던 북쪽에 있는 작은 플랫의 뒷방에서 시작되었다. 샘은 원래 여러 신문과 잡지에서 포토 저널리스트로 사진도 찍고 글도 쓰는 평범한 기자 출신으로 어차피 프리랜서로 뉴스를 만드느니, 아예 본인의 이름을 따 회사를 차리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뉴스 에이전시로 주류 신문과 잡지에 뉴스를 만들어 공급했다. 그러다가 2008년 즈음 어차피 취재를 나가는 김에 영상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자연스러운 판단으로 5만 파운드를 투자해 촬영과 편집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미디어 시장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시기였다. 영국의 주요 신문, 잡지들의 판매량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거대 신문사와 잡지사는 자연스럽게 외주업체들에게 주는 일거리부터 줄였고 샘은 이제 신문이나 잡지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방송 산업으로 뛰어들었다.

처음엔 쉽지 않았다. 샘은 물론, 바크로프트 직원들 모두 현장에서 잔뼈가 굵어진 신문기자 출신들이고 기사를 찾고 이야기를 만드는 일에는 자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인쇄와 방송은 전혀 달랐다. 뛰어난 신문기자들이니, 자동으로 멋진 방송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대중은 똑같았지만 인쇄물의 구독층과 방송의 주요 시청자들은 전혀 다른 그룹이었고, 놀라운 정도로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 샘은 바로 뛰어난 방송 전문 인력들을 영입했고 방송 제작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10여 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온라인 인큐베이션(online incubation)'이라는 전략으로 영국 방송 제작의 선두에 섰다.

입지는 온라인에서, 진출은 방송으로?

바크로프트의 차별화된 전략의 핵심을 살펴보면, 우선 바크로프트는 주요 플랫폼을 처음부터 TV 채널이 아닌 인터넷 웹 사이트로 잡았다는 점이다. YouTube를 비롯한 웹 사이트 채널을 주로 이용하면서 점차적으로 MSM, Daily Motion, Mail Online 등 역시 웹 사이트 채널로 영역을 넓혀갔다. 바크로프트는 영국 제작사로서 최초로 중국의 Youku 사이트와 손을 잡았으며 이런 행보를 통해 구독자 숫자를 엄청난 속도로 늘려나갔다. 현재 YouTube를 통해 서비스를 하는 바크로프트 TV는 5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기준으로 시청자 숫자는 40억이 넘어섰다. 이 숫자는 CNN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며 영국 내 미디어 영향력 5위 안에 드는 통계이다. 정확한 회사 정보는 비공개지만 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약 100여 명의 직원으로 운영 중이라는데 그 규모로 이룬 성과로는 가히 눈부시다. 이제 바크로프트는 '바크로프트 동물 채널(Barcroft Animals)', '바크로프트 자동차 채널(Barcroft Cars)' 같은 전문 채널로도 영역을 점차 넓히는 중이다.



바크로프트는 온라인에서 인지도와 인기를 쌓고 전통 방송 시장에 진출해 입지를 다지고 있다. YouTube 바크로프트 TV에서 'Extreme Love'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던 짧은 동영상 시리즈는 같은 제목으로 60분 프로그램 8부작 시리즈로 TCB에 팔렸으며 자동차 프로그램, 의학 시리즈, 동물 쇼 등이 같은 경로로 시리즈 편성을 받았다.
사진 출처 : 필자 제공

바크로프트가 영리한 지점은 온라인에서 인지도와 인기를 쌓고 이를 이용해 전통 방송 시장으로 진출했다는 점이다. 즉 온라인 플랫폼에서 짧고 강력한 소재로 화제몰이를 한 뒤, 그중 승산이 있는 킬러 콘텐츠로 공중파의 편성을 따냈다. 바크로프트는 이런 식으로 영국의 공중파 채널인 Channel 4, Channel 5, 그리고 BBC3에서 많은 다큐멘터리와 교양 프로그램을 편성 받았고 화제의 프로그램들을 제작했다. 수많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YouTube에서 다양한 실험을 거친 후,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바크로프트의 온라인 인큐베이션(online incubation) 전략이 먹힌 것이다. 일례로 YouTube 바크로프트 TV에서 'Extreme Love'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던 짧은 동영상 시리즈는 같은 제목으로 60분 프로그램 8부작 시리즈로 TCB에 팔렸으며 자동차 프로그램, 의학 시리즈, 동물 쇼 등이 같은 경로로 시리즈 편성을 받았다. 2016년에는 Channel 4에서 프로그램 대신 이 회사 자체에 직접적 투자를 결정해 주목을 받더니 최근에는 Netflix 오리지널 시리즈 <Amazing Interiors>의 제작을 따내 또 한 번 화제를 낳았다. 요즘 같은 위기의 시대에 놀라운 성공담이다.

미디어 소비의 시대, 기회는 열려있다

그렇다면 바크로프트만의 성공의 비밀은 뭘까? 스스로 밝히는 이유는 싱겁게도 '좋은 콘텐츠'이다. 그들이 만드는 이야기의 공통점은 바로 홈페이지에 떠 있는 바크로프트의 슬로건, "삶의 놀라운 면(amazing side of life)"으로 요약된다. 바로 우리네 이웃들의 다양한 생각, 다채로운 사람들의 인생을 보여주되 평가는 하지 않겠다는 열린 편집이 영국 시청자뿐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를 공략 중이라는 것이다.

TV 방송 시장이 위기라는 지금, 새로운 미디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바크로프트의 행보. 이게 과연 우리가 찾고 있는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다들 미디어 시장에 비관적이고 소극적일 때, 바크로프트는 디지털 콘텐츠를 향유하는 디지털 시청자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었다. 그리고 TV와 디지털이 빠른 속도로 통합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샘 바크로프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앞으로 미디어 공룡들이나 방송사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이 위기는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대중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으니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 흔한 말이지만 우리 방송인들이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글. 생명보험협회 홍보부

보험설계사 중 최고의 권위자, 골든펠로우(Gloden Fellow)

호영이 : 아린 씨, 요즘 치매율이 점점 올라간다는 기사 봤어요?

아린이 : 네, 얼마 전까지 날씨도 많이 덥고,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치매 환자가 급증한다고 하더라고요.

호영이 : 얼마 전 우리 장인어른도 병원에 갔는데 치매 초기증상이라고 하더라구요. 좀 더 알아보니깐 지속적으로 돈이 엄청 들어간다는 거 있죠? 그래서 나도 따로 적금 넣은 것도 없고…. 보험 하나 가입할까 하는데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린이 : 그런 건 보험전문가인 보험설계사에게 물어보면 되지 무슨 걱정이에요?

호영이 : 보험설계사 중에도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가입만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믿을만한 설계사를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걱정이죠.

아린이 : 그런 거라면 걱정 마요. 내가 잘 아는 보험설계사가 있으니 소개시켜 줄게요.

호영이 : 어떤 분인데요? 혹시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이신 분이라면 사양할게요.

아린이 : 훗. 당연히 아니죠. 객관적으로 증명된 우수인증설계사 중 한 분이에요. 보험판매, 계약유지 등 여러 조건을 따져 전국 보험설계사 중 최고 300명 안에 든다는 골든펠로우(Golden Fellow)예요.

호영이 : 아 정말요? 예전에 우수인증설계사에게 설계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아린이 : 그렇죠. 그중에서도 더욱 믿음이 가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Top of the Top!

호영이 : 오! 그럼 그분 연락처 부탁해요!^^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낄 때 '어느 보험설계사를 찾아가야 하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설계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에서는 2008년 보험업계의 KS마크와 같은 우수인증설계사를 도입하였습니다.

우수인증설계사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보험회사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현재까지 모집한 보험계약 1년 이상 유지율이 90%, 2년 이상 유지율이 80% 이상이고 불완전판매가 0건이어야 하며, 보험업법 및 기타 금융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사고 등 금융 사건·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달성했을 경우에만 우수인증설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 우수인증자 중 Best of the Best를 선정하고자 차별적인 인증제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골든펠로우(Golden Fellow)라는 명칭으로, 뜻을 풀이하면 특별한(Golden) 최고의 권위자(Fellow)라는 뜻입니다.

골든펠로우는 우수인증 5회 연속 선정된 인증자 중 근속기간, 인증횟수, 보험계약유지율,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 300명만 선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설계사를 만났을 때 골든펠로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보험설계사를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作家
共感 1

바람의 땅에서 들꽃처럼 사는 사람들, 고려인

서현이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KBS-R <한국의 소리> <한국의 사투리> <백제의 뿌리를 찾아서>
<이명숙 변호사의 가정법원>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라디오 문학관>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에 따라 러시아의 극동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 17만여 명은 이유도 모른 채 짐을 꾸려 강제이주 열차에 올랐다. 1937년 9월 9일 연해주 라즈돈노예역에서 출발한 강제이주 열차가 처음으로 멈춘 곳은 카자흐스탄 우슈토베 지역. 80년이 지나 그곳, 우슈토베에서 만난 83세의 신베라 할머니는 서툰 모국어로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가 작년 10월 3일에 방송한 KBS 한민족방송 1라디오 공동기획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8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바람의 세월, 아직 끝나지 않은 유랑』 제1부, 고려인 1세 "바람처럼 살았소">의 첫 인서트가 되었다.

"우리는 원동에서 살다가 카자흐스탄 실려 왔소. 처음에는 고생하면서 구차하게 살았소. 고생하는데 카작 사람들 우리를 도와주고 집에 마다 음식을 구원해여(나눠줍니다). 올해 80년 지나간 카자흐스탄 고려사람들 위해서 잘살게 되었소."

중간에 나오는 '80년'이라는 숫자는 신베라 할머니가 임의로 바꿔 불렀다고 했다. 고려인들이 말하는 '원동'은 연해주를 가리킨다. 인터뷰는 고려인들이 처음 도착해 땅을 파고 움막을 지었던 우슈토베 언덕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이뤄졌다. 인터뷰를 하는 내내 바람이 몹시 불었다.

고려인들을 취재하는 내내 따라다녔던 것은 '바람'이었다. 1991년 12월 25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고르바초프는 소련을 해체한다며 공식 선언했다. 곧바로 소련의 공화국 15개의 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민족 언어를 국가 공용어로 선포해 버린다. 고려인들은 러시아어 대신 낯선 언어를 배워서 살든지 아니면 다시 짐을 꾸려 중앙아시아를 떠나야 했다. 그때 4만여 명의 고려인들이 원래의 땅 연해주로 돌아오는 재이주의 여정을 선택했다. 그곳에서 만난 니나 아주머니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특집 다큐멘터리의 타이틀이 되었다.



“우리 고려사람 바람처럼 여기저기 (떠돌면서) 살았소. 그런 말이 있재요(있지요). 바람 부는 대로 산다고 고려사람. 그런 말도 있소. 좋은 바람. 좋은 바람.”

바람처럼 이리저리 떠돌면서 살았다고 말하는 고려인들. 이들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눈물이 흐를 때는 먼 들녘을 바라보았다. 고려인들이 처음으로 출발한 러시아 연해주 라즈돈노예역에서 만난 88세의 조미하일 할아버지는 80년 전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제이주 열차 안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고려인들은 얘기하기를 꺼렸다. 그 기억만 떠올리면 며칠 동안은 악몽을 꾸기 때문이다. 고려인들이 큰 숨을 고르고 들려준 강제이주 열차 안 증언은 다큐멘터리에 그대로 살렸다. 그러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고려인들을 실은 기차는 한 달, 길게는 두 달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 먹을 건 일찌감치 떨어졌습니다. 시베리아 벌판의 날씨는 왜 그렇게 추웠는지요…? 춥고 배고픈 화물 열차 안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략)

달리던 기차가 잠깐 멈추면 안고 있던 죽은 아이를 땅에 묻었습니다. 얼어 있던 땅이 제대로 파이지 않아 언 땅을 파다 보면 손이 갈라져 피가 났지요. 그래도 행여, 불쌍하게 죽은 내 아이 들짐승한테 물려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얼어 있는 땅을 파고 파고 또 파서 아이를 묻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죽는 사람이 많아지자 땅을 파고 시신을 묻는 시간마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달리는 화물칸 밖으로 내 아이를… 내 소중한 핏덩이를, 아니 내 살점을 밖으로 던졌습니다. 강제이주 열차 지나는 기찻길 주변에는 눈을 감지 못한 고려인들의 눈물이 바람이 되어 떠돌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제작할 때 내레이터를 하는 주현미 씨가 너무 울어 세 번이나 멈춰야 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는 제30회 ‘한국PD대상 라디오 다큐 작품상’을 받았다. 고려인들과는 오래전부터 많은 인연을 맺었다. 라디오 다큐멘터리 취재 차 연해주 구석구석을 누빈 것만 네 차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도 수차례 다녀왔고 러시아 로스토프 나도누와 볼고그라드에 사는 고려인들도 만났다. 어디에 살든 고려인들은 “고려인들은 돌 위에 올려두어도 산다”는 고려 속담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한다. 바람처럼 떠돌다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면 제일 먼저 학교를 짓고 우리말을 가르쳤던 고려인들. 힘들 때는 오히려 노래를 불렀던 우리 고려인들은 들꽃을 닮았다. 바람의 땅에서 들꽃처럼 사는 고려인들. 그들을 만날 때마다 겸손을 배우고 감사를 익힌다. 앞으로도 바람 속에 들꽃 향기가 묻어 있으면 고개를 숙이리라.

作家
共感 2

우아한 작가는 없다

배성아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SBS-R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MBC-R <김원희의 정오의 희망곡> <오후의 발견>
KBS-R <출발 FM과 함께> 外
MBC아카데미 구성작가반 전임교수

방송 시그널이 흐르고 ON-AIR에 켜지는 녹색 불.
이때 갑자기 허둥거리는 DJ를 보며 콘솔을 잡고 있던 PD의 한마디,
"작가님, 대본이 없어요."
당황한 나는 옆 컴퓨터에서 프린트 버튼을 누른다. 그런데 이번에는 프린터기가 고장 났다.
"방송국 프린터가 다~~ 고장 났대요."

식은땀을 흘리며 발을 동동 구르는 나.
어쩌지, 또 고장이네…. 안돼, 안돼~ 이렇게 중얼거리며 잠에서 깨어나는 고약한 습관.
단 한 번도 원고를 늦게 쓴 적도 없고 웬만하면 미리 쓰는 습관을 가진 내가 왜 자꾸 이런 꿈을 꾸는 걸까. 청취율 1등을 하거나 문자가 몇천 건쯤 도착하는 기분 좋은 꿈을 꾸면 좋으련만 말이다.
늘 원고를 못 썼거나 프린터기가 고장 나거나 게스트가 늦거나 PD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악몽은 습관에 가깝다. 눈을 뜨면 '꿈이라서 참 다행이야' 하면서 웃기도 하는데, 이쯤 되면 직업병이 확실하지 않은가.

저녁밥 거르는 건 기본이었던 밤 프로그램 라디오 작가 시절. 공개방송도 많았고 챙겨야 할 게스트도 어찌나 많던지. 도착하는 사연도 많았기에 당연히 바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아이돌 가수들 스케줄 맞추고 전국을 다니며 공개방송을 하다 보니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낮 프로그램 작가님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그렇게 시간대만 옮겨도 조금은 삶의 수준이 올라갈 거라 믿던 어느 날, 기다리던 낮 12시 프로그램, <정오의 희망곡>의 작가가 되었다. 이제는 규칙적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 그야말로 저녁을 누리는 우아한 삶에 대한 기대를 품었던 것.



하지만 이번에는 배고픔이 문제. 방송 시간 전후로도 코너 녹음 등 일정이 잡혀 있었기에 늘 배가 고팠다. 매일 끼니를 놓치는 배고픔의 서러움을 아는가. 마침 그 시기에 결혼을 하고 임신 기간이었기에 나는 먹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늘 굶주린 상태였음을 고백한다.
노래 두 곡이 나가는 동안 신세 한탄을 하며 김밥을 먹으며 우아한 작가 생활은 고사하고 점심이나 편히 먹었으면 좋겠다고 주억거렸던 시간들이 떠오른다.

밤 프로그램의 버라이어티함과 낮 프로그램의 센 토크 구성에 이어 드디어 우아함의 대명사 클래식 채널의 작가가 된 나. 재택근무, 재택집필이라는 매력적인 근무조건과 종종거리지 않아도 될 거라는 믿음으로 시작한 일. 하지만 운명은 늘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법.
2018년 여름, 폭염의 나날 속에 재택집필이 주는 잔인함이란. 등 뒤에는 라디오 작가를 하며 태교를 했던 아이들이 자라나서 나무늘보처럼 누워있는 상황. 그런 조건에서 원고를 쓰고 밥을 차리고 다시 원고를 쓰고 학원에 모셔다드리는 남루한 현실 속에 내용만큼은 우아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산다는 걸, 누가 알아주려나.

내가 사랑하는 화가 르네 마그리트.
그는 방에서 옷을 차려입고 부엌으로 출근을 해서 8시간 그림을 그린 후, 다시 방으로 퇴근하는 삶을 산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 상황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중절모까지 쓰고 출근을 하고 작업을 했다는 그의 우아한 신념과 몸짓을 배우고 싶다.
인생은 내게 무언가 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린다.
그가 했던 말처럼, 나도 자부심을 갖고 조금 더 예쁜 컵에 커피를 담아 컴퓨터 책상에 앉는다면 낫지 않을까.

나이 들면서 세상을 돌아보니 그 어떤 직업도 우아하지 않았다. 단지 마그리트와 같은 신념의 차이가 그 사람의 분위기를 만들어줄 뿐.
인생은 우리에게 무언가 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지런히 원고를 쓴다, 우아함보다는 뜨거운 가슴으로 말이다.

作家
共感
3

50일의 TMI (Too Much Information)

심미은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KBS <6시 내고향> <연예가중계>
EBS <스페이스 공감>
Arirang Radio <K-POPPIN'>

오랜만에 만난 선배가 내 사진을 찍어주고는 "잘 나왔지?" 씩 웃으며 건넨 그 액정화면을 잊을 수가 없다. 밀가루 포장지에서나 보던 이 백곰이 나라고? "언니 저 진짜 이래요?" 하니, "사진이 실물을 다 못 담긴 하지." 아니다. 남이 찍어준 사진이 '리얼 미'라는 걸 난 알고 있다. 더 이상 유니콘 같은 셀카에 속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그 길로 곧장 동네 헬스장을 찾았다. 3개월 전 상담만 받고 도무지 다닐 힘아리가 없어 포기한 그곳. 없는 힘아리를 짜내는 건 역시 돈밖에 없다. 돈 아까워서라도 다닐 수 있게 비싼 PT를 30회나 질렀다. 기본 문진표에 하루 운동량 체크를 '머리 감기'부터 시작한 나였다.

운동을 시작한 나는 마치 어제 태어난 사람처럼 해맑은 질문만 해댔다.
나: "왜 아까보다 더 힘들죠?" / 쌤: "지쳤으니까요."
나: "선생님 허벅지 뒤쪽이 아파요." / 쌤: "허벅지 운동을 했으니까요."
나: "선생님 뼈가 아파요." / 쌤: "근육이에요."

운동하면서 가장 못 하는 건 '쉬는 것'이었다. 한 세트를 하면 헬스장을 한 바퀴 도는데, 쌤은 내게 특별히 두 바퀴를 돌라고 했다. 걸음이 너무 빨라 충분히 쉬지 못하니 다음 세트를 잘 할 수 없다고. 김하나 카피라이터의 책 <힘 빼기의 기술> 중 한 구절이 떠올랐다. "힘을 주기 위해 힘을 빼야 할 때가 있다", "주삿바늘 앞에 초연한 엉덩이처럼". 나는 잊고 있던 장면이 떠올랐다. 일이 너무 많아 질식할 것 같던 어느 날, 선배를 만나러 3호선을 탔다. 종일 노트북만 보던 고개를 들고 휙휙 지나가는 한강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그때 스르륵- 술술- 긴장과 함께 아이디어도 풀렸다. 충분히 힘을 내려면, 힘을 빼는 순간은 분명 있어야 한다.



운동하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은 "왜 힘들지?"였다. 1kg짜리 아령을 들었다 올리는 걸 왜 못하는 거야, 뭘 했다고 비지땀이지, 내 다린데 왜 못 올리니, 등등 왜 자꾸 바보 같은 의문이 드는지 생각해보았다. 그 말의 함의에는 "왜 힘들지? (보기엔 별것도 아닌 이 동작을, 이까짓 게 뭐라고 내가 못하는 거지)"라는 자만심+잘하려는 마음이 들어 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 애쓰고 있다. 생각해보면 잘 되는 일은 늘 물 흐르듯 흐르는 속도감이 있다. 자만해서 자신을 몰아붙일 때보다 못하는 걸 인정하고 마음을 비울 때, 어느샌가 가볍게 나를 데려가는 유속.

PT 비용은 비싸다. 하지만 '배달의 민*'에 나눠주고, 동네 족발집, 양꼬치집, 곱창집에 나눠주던 돈보다는 훨씬 적은 돈이다. 운동을 시작하고 식비가 매우 줄었다. '운동 후 식사까지가 운동의 완성이다'라는 말을 어디서 주워듣고는 운동한 날만큼은 꼭 건강하게 챙겨 먹으려 한다. 나는 엽떡 못 잃고, 지코바 못 잃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건강해지니 몸도 건강한 음식을 원한다. 토마토의 단맛, 아보카도의 고소한 맛, 오트밀의 골판지 맛(…)을 사랑한다. 좋은 순환이다.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 더 있다. 쥐어 짜내도 지방이 없을 것 같은 완벽한 몸매의 사람들이 왜 기를 쓰고 헬스를 하는지, 복장은 또 왜 그렇게 워터파크 스타일인지. 그들은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는 단계를 넘어, 원하는 shape에 다가가는 또 다른 기쁨을 아는 자들이다. 착 달라붙는 옷은 운동할 때 근육이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입는, 배운 사람들이다. 아직 헬스장 땀복 입고 곡소리 내는 레벨이지만, 언젠가는 나도 훅 파지고 착 붙는 운동복 입을 날 오겠지. 재등록을 권하는 PT쌤에게, "운동하기에 여름이 더 힘들어요, 겨울이 더 힘들어요?"라고, 여전히 갓 태어난 사람 코스프레 하는 나지만, 운동은 점점 재밌다. 그동안 쉬운 방법으로 택한 것들이 결국엔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걸 이제 안다. 정직하게 가는 길이 언제나 지름길이다.

이제 운동 50일 차, 앞으로 더 좋은 원고를 쓰기 위해서라도 운동은 계속할 생각이다. 처음 방송작가 일을 시작할 때 밑천은 노트북 한 대였다. 노트북만 있으면 보부상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돈을 버는 직업. 이제 거기에 밑천을 하나 더 얹는다. 지치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운동. 체력이 생기니 내 일에 집중하고도 에너지가 찰랑인다. 남는 에너지로 열심히 놀고 열심히 행복할 거다. 행복한 마음에서 오는 원고는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리라 믿으며. 체력은 국력, 아니고 필력筆力입니다.

‘2018 방송작가 저작권 연수’
9월 13~14일, 경북 청송에서 열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방송작가 저작권 연수가 오는 9월 13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경북 청송 대명리조트에서 개최된다. 우리 협회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저작권 연수는 방송작가가 방송콘텐츠의 제작·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저작권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쌓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저작권 전반의 이해, 저작권 분쟁 사례연구뿐 아니라 금년부터 시행된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의 세부 내용과 활용 방법 등을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해당 강의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사업을 장기간 주관한 문체부 실무 담당자가 참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협회는 가능한 협회회원 모두가 저작권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직 연수 경험이 없는 회원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참석할 것을 권하고 있다.

3분기 신입회원 입회서류 접수

2018년도 3분기 신입회원 입회서류 접수가 시작된다. 접수 기간은 9월 4일(화)부터 9월 7일(금) 오후 3시까지로, 입회원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작성한 입회원서는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출력한 상태로 협회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협회 경영지원팀(02-784-1696)으로 문의하면 된다.

협회는 그간 매년 상하반기(3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입회신청을 받았으나, 작가들의 원활한 입회를 위해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1년에 총 4차례(3월, 6월, 9월, 12월)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방송환경과 집필시스템이 다변화됨에 따라, 지난 3월 회원 입회 및 탈퇴규정을 개정하면서 경력사항을 포함한 자격 기준 등 입회 기준을 일부 조정한 바 있다.

2018 상반기 내부감사 ‘적정’ 판정

지난 8월 23일, 2018년도 상반기 내부감사가 시행됐다. 내부감사는 반기 동안 협회 재정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자체 감사로, 이번 역시 김동용, 이용자 감사가 면밀하고 세심하게 법인회계 운영내용을 감사해 ‘적정’ 판정을 내렸다. 내부감사는 2014년부터 연간 두 차례 반기별로 시행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1년에 한 차례씩 공인회계사를 통해 외부감사도 받고 있다.

추석 선물 10kg 쌀 발송 예정

협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협회 회원들에게 햅쌀 10kg을 전달할 예정이다. 1년에 한 번 전달되는 추석 선물은 협회 정관 제9조에 따라 정회원을 대상으로 발송

된다. 회비가 6개월 이상 연체된 회원은 9월 11일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추석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회원 복지 사업 중 하나인 추석 선물은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회원의 호응도가 가장 높은 햅쌀로 선정해, 매년 가장 품질이 좋은 것으로 엄선해 발송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 운영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상담 후 해결방안 및 피해 구제 방법 모색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콘텐츠공정상생센터는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콘텐츠공정상생센터에서는 문화산업 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위 피해 신고 상담, 문화산업 기업과 종사자 간 불공정 행위 피해 구제 상담, 문화산업 내 불공정 거래 행위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자문 지원, 문화산업 및 공정 거래 관련 법률상담 안내 및 피해구제 안내 등이 이루어진다. 문화산업 및 공정 거래 관련 법령에 따른 불공정 행위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시,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문화산업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전화, 우편, 방문을 통해 신고하면 상담과 피해 사실 확인 및 조사를 거쳐 불공정 행위 개선 권고 또는 유관기관 협력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콘텐츠공정상생센터 전화 : 070-5167-3500

E-mail : fair@kocca.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최

'예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진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예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예술계 내 성 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교육일정은 9월 17(월), 10월 15일(월), 11월 12일(월) 오후 4시에서 6시까지이며, 동숭동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참고로 향후 문화예술 분야의 정부지원·공모사업 응모 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본 교육 수료를 통해 교육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에는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와 인권교육센터인 경계너머교육센터 대표 이선희 감독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 예술인복지재단(02-3668-0262) 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02-3156-6036)으로 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동의절차' 안내

질병관리본부에서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를 극 중 소재로 사용할 경우 참고하여 집필해줄 것을 권고하며 관련한 현행 법령을 협회 측에 전달해왔다.

■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대상자(또는 법정대리인)로부터 소정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

■ 검사의뢰자가 제3자 등 검사대상자의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검사대상자로부터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유전자검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전자검사동의서(별지 제52호 서식)에 검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서 유전자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협회 여름성수기콘도 이용 기간 종료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였던 협회 콘도의 여름성수기 기간이 종료됐다. 이 기간에 총 66명이 협회 콘도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수기가 끝나는 8월 26일부터는 기존 방식대로 콘도를 사용할 수 있다. 협회에 문의해 원하는 날짜에 사용 가능한 객실이 있을 경우 이용하면 된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주최
'2018 경남스토리 공모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경남 소재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 출판 등 사업화 추진이 가능한 미공표 창작 스토리를 공모한다. 응모작품은 경남의 역사, 자연, 지리, 민속, 구비전승, 인물, 현재 일상이야기 등을 소재로 하면서, 소설, 희곡, 시나리오 등의 형식을 갖춘 미공표 작품(트리트먼트 제외)이어야 한다. 시상은 대상 1편, 우수 1편, 장려 3편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상금은 총 1,100만 원에 달한다. 접수기간은 10월 15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세부 내용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콘텐츠영상부(055-213-8055)로 문의하면 된다.

회원 신간



조선에 반反하다

조윤민 / 글항아리

'지배와 저항으로 보는 조선사 4부작' 중 제3권. 시리즈의 제1권인 ≪두 얼굴의 조선사≫와 제2권인 ≪모멸의 조선사≫가 모두 문체부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될 정도로 양질의 콘텐츠를 인정받은 저자 조윤민은 이번의 ≪조선에 반反하다≫에서 "이탈과 불온, 역류의 이야기를 깊고 넓게 다루고 저항과 항쟁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3부 '역류 - 풀과 바람과 칼'에서는 19세기에 일어난 대규모 민중 항쟁과 기층 민중을 동원해 봉기한 변란 성격의 반란을 다룬다. 이들 항쟁은 지배 체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항쟁을 이끈 몰락양반과 평민지식인 등 저항지식인과 봉기군의 주축을 이룬 기층 민중이 주인공이다.



자수성가한 열두 사람의 CEO 이야기

고사리 / 일월문학

이 책은 머리로 쓴 것이 아니고 발로 썼다. 발로 전국을 뛰어다니며 생생한 취재를 해서 실제로 있었던 팩트들을 소설로 써서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열두 명의 자수성가한 CEO들이 펼치는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성공담과 자수성가의 숨겨진 비결들!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성공한 그들은 저마다 자수성가에 대한 숨겨진 비결이 한두 가지씩 있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들은 사업에서, 인생에서, 그리고 사랑과 결혼에 성공했을까? 이 책에는 열두 명 이외의 많은 사람이 주인공으로 또 등장한다.



청산별곡

이은집 / 광진문화사

이은집 작가의 33번째 저서 ≪청산별곡≫이 출간됐다. '청산별곡' '홍의장군' '삼장수 수련원' '가시리' '스승과 제자' '눈물 한방울' '묵고노자 할배' 등 7편의 역사소설은 종래의 따분하고 도식적인 틀을 깨고 마치 텔레비전 단막극을 보는 듯한 구성과 발 빠른 전개로 독자를 매료시킨다. 역사소설은 사실을 근거로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구성과 표현의 제한이 많다. 그러나 이 작가는 가능한 독자의 눈높이에 맞추며 새로운 감각과 언어로 역사를 리얼하게 파헤쳐 재미와 감동을 한층 높였다.

회원 동정

경사

최희진 회원 8월 26일 결혼

정서임 회원 9월 9일 결혼

조사

이윤진 회원 8월 6일 부친상

정희자 회원 8월 13일 배우자상

김남형 회원 8월 20일 부친상

권혜진 회원 8월 29일 부친상

노유경 회원 8월 12일 모친상

민성욱 회원 8월 15일 부친상

김세윤 회원 8월 20일 부친상

성공의 정석

분명 편견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재미없을 것이라는 생각. 한·중·일을 제외하고는 수준차이가 현격해서 보나마나 결론은 버킹검일 것이라는 예단. 하지만 TV 앞에서 그 편견은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우승후보 축구대표팀이 말레이시아에 져서 조 2위로 16강에 올라갈 줄은, 베트남과의 4강전을 가슴 졸이며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계 최강 여자양궁이 개인전에서 은메달조차 따지 못하는 이변이 일어날 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편견을 깨부순 것은 몰라보게 성장한 아시아 국가들의 실력이었습니다.

방송가도 역시 춘추전국시대입니다. 지상파가 맥을 못 추는 반면, 요즘 화제작들은 채널의 인지도와 무관하게 상종가를 칩니다. 본사 프로그램의 재방송 채널에 불과했던 지상파의 자회사 채널이 자체제작 프로그램으로 지상파에 진출하는 반란이 일어나고, 주목받지 못했던 종편 채널이 예능프로그램으로 지상파 시청률을 넘어섭니다. 신인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시청자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야흐로, '명망'이 아니라 '콘텐츠의 내용'이 중요해진 시대, 진정 콘텐츠의 무한경쟁 시대라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콘텐츠라야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번호 특집이 마련된 이유입니다. '성공의 정석'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목받고 시청률이나 화제성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대강 감은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책을 발간하는 순간까지 그 답은 명확하지 않지만, 거론된 작품들은 모두 손톱만큼이라도 새로운 것을, 조금이라도 다른 시각으로, 한 단계 더 고퀄리티로 만들고자 노력한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는데 프로그램의 질은 날로 상향평준화 되는 시대,

참 방송작가 하기 힘든 시절입니다.

월간 방송작가 통권 150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운경 **책임 편집위원** | 김주영 **편집위원** | 고혜림·곽상원·김명호·김윤양·박나경 **진행** | 김선미 **제작지원** | 홍승범 **디자인** | 큐라인 02-2279-2209 **표지 인물** | 작가 조정주
표지 사진 | 김용철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4층 403호 한국방송작가협회
전화 | 02-782-1696, 780-5220 **팩스** | 02-783-3711 **홈페이지** | www.ktrwa.or.kr **메일** | journal@ktrwa.or.kr



역사와 전통의 방송작가 명문

방송작가교육의 메카
한국방송작가협회 교육원

가장 많은 방송작가 배출!

- 매년 각 방송사 극본공모 결과 당선 작가의 80~90% 차지
- 역량 있는 드라마작가, 구성작가, 쇼·코미디작가, 라디오작가 다수 배출
- 1988년 설립 이래 방송작가 최고의 요람으로 자타 공인

매기 25명 내외의 현역 방송작가 책임 강의

- 현역 방송작가 첨삭강의
- 이론과 창작 결합 시스템
- 기초, 연수, 전문반 등 계단식 교육
- 작품분석과 개별지도
- 최상위 창작반은 소수정예 장학금으로

www.ktrwa.or.kr TEL 02-780-000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KOREA TV & RADIO WRITERS ASSOCIATION

혜택도 보장도 **길어야 안심이죠!**

내 인생, 끝까지 행복하게

100세시대 종신보장, 생명보험이 해결해 드립니다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